

항우연 345명 소송 제기... “소득세 내는 연구수당, 퇴직금 포함해야”

전국과기노조 항우연지부, 총 소송가액 40억원 내외 추정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인사, 성과급, 연구수당 등 각종 이슈로 내용에 시달리는 가운데 항우연 노조가 항우연을 상대로 퇴직금, 퇴직연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전국과기노조) 항우연지부는 “재직 중인 연구원과 퇴직한 연구원을 포함한 약 350명의 연구수당이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집단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우연에 재직 중인 900여 명의 3분의 1 이상이 소송에 참여한 셈이다. 총 소송가액은 40억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

항우연에 따르면 항우연 직원은 임금과 참여하는 사업에 따라 책정되는 연구수당을 받아왔다. 일종의 성과급이다. 항우연은 연구

수당이 자의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실질 참여율과 연구과제 기여도에 따라 2002년부터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연구수당은 개인 연봉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노조는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인정해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금껏 연구수당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했음에도 임금으로 취급받지 않은 것이 부당하며 이로 인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납입금이 감소했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대전지방법원이 국내 첫 달케디션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원에게 설계 변경 논쟁이 있던 5개월 분의 연구수당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며 지급하라고 한 제1심과 제2심 판결에 근거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이 연구수당도 임금이라고 판단했다고 본 것이다.

항우연 측은 “다누리 연구원 연구수당에 관한 재판은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와 항우연의 연구수당을 둘러싼 논란은 결과에 따라 수십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집단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 연구수당 규정은 다른 출연연에도 해당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신명호 항우연 책임연구원은 “이번 소송은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확인받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과 출연연의 사업 책임자들에게 참여 연구자들에게 주어야 할 정당한 몫을 제대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과학기술계의 잘못된 연구수당 지급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태선기자



한밭수목원 4월의봄꽃 만개

도시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한밭수목원에 봄꽃이 만개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봄철을 맞아 튜립을 주제로 조성된 화단은 다채로운 색감의 튜립과 강렬한 향기의 히아신스가 방문객들이 발길을 붙잡아 대표적인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다. 이 밖에도 4월에만 볼 수 있는 황매화, 조팝나무, 영산홍 등 다양한 봄꽃들을 만날 수 있으며, 튜립 화단은 열대식물원 앞과 동원의 수생식물원(연못) 인근에 조성되어 있다. 조육연 대전시 한밭수목원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도시 속 정원인 한밭수목원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 소중한 추억을 많이 남기시길 바란다”라며 “다가오는 5월 10일부터는 장미테마로 한 '2024년 봄꽃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세종 함께 만든다

세종시-국립한글박물관 협약... 한글문화 체험교육 운영 추진



영유아 부모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문화자원 상호 활용·공유 ▲한글문화 진흥 관련 공동 사업추진·홍보 및 인적교류 ▲한글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협력에 나선다. 또한, ▲한글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 및 한글놀이터 지역 확산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 등에도 힘을 모은다.

시와 국립한글박물관은 이번 협약에 따른 첫걸음으로 어린이 동반 가족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글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부터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현재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협약은 세종시의 한글문화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글문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한글박물관과 협업을 통해 한글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한글문화의 보존,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립한글박물관과 협약을 맺고 한글문화 가치 확산 및 한글문화도시 세종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17일 시청 한글사랑 책문화센터에서 최민호 시장,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국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김일환 국립한글박물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글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와 ‘지역과 손잡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글문화’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 국립한글박물관 간 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지난해 문체부로부터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세종’을 목표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국립한글박물관(용산구 서빙고로 139)에는 연간 50만여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한글 원리의 오감 체험 공간인 한글놀이터는

외국인 근로자 이직 사유 59% “저임금, 일 위험해서”

통계청, 이민자 체류상태 고용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이직을 희망한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6명(58.6%)은 저임금, 위험한 작업 등을 이직 사유로 든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이민자 체류상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임금근로자 중 이직 희망 비율은 123%였다. 사유로는 ‘임금이 낮아서’가 39.2%로 가장 많았고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19.4%)가 뒤를 이었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임금이 낮아서’ 이직을 원하는 노동자 비중은 영주(44.8%)에서 가장 높았고 유학생(44.4%), 전문인력(42.5%) 등 순이었다.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 이직

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방문취업(36.0%), 결혼이민(23.3%), 재외동포(23.0%) 순으로 높았다. ‘방문취업’은 특례고용허가제에 따라 구소련·중국 등에서 외국 국적의 동포들이 38개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다.

지난 1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의 135%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유학생(21.5%) 비중이 가장 높았고 방문취업(16.3%), 재외동포(14.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재외동포의 46%, 방문취업 외국인의 43%가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0~50시간 비중이 56.5%로 가장 많았다. 50~60시간(18.1%), 60시간 이상(10.5%) 등 50시간 이상 일한다는 노동자는 28.6%를 차지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50시간 이상 노동 비중은 비전문취업(35.6%), 방문취업(30.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전문취업’은 고용허가 협약을 맺은 16개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50.6%는 월평균 200만~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비전문취업(66.5%), 전문인력(53.9%), 방문취업(51.5%) 등 순으로 200만~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비중이 높았

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은 88.0%가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 만족도는 62.6%로 이중 비전문취업 노동자의 만족도(71.1%)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비전문취업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 인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체류자격별 국적을 보면 비전문취업은 우즈베키스탄·필리핀 등 기타 아시아(86.9%) 비중이 높았다. 방문취업은 ‘조선족’으로 불리는 한국계중국(84.5%)이 가장 많았고 유학생은 베트남(34.6%), 중국(29.9%) 순이었다.

김정환기자

하늘선물 금산인삼

생명의 교향곡, 금산, 세계로 미래로!

충남도의회 기경위,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충남의 차별화된 폐배터리 산업 고민”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지윤)는 17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이지윤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은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를 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에서 ‘관련 법규인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만 담겨 있고 상위법이 없는 상황인데, 상위법이 제정되면 다양한 산업에 집중하고 확대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가이드가 생길 것”이라며 “조례 확대 방안도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

의힘)은 “최근 제주도 전기차배터리 산업센터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잘 운영되고 있다”며 “도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방향도 제주도 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집행부에서 벤치마킹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극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 없이 추진하길 바란다”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폐배터리 재사용 연구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용 후 배터리에서 나오는 광물 소재를 폐기물로 보는 것이 아닌 재활용 자원으로 분류하여

산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 완화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30년 전 한국청년회의소 JCI 회원으로 있을 때 폐건전지를 많이 수거하여 중앙에 보낸 실적으로 수상한 적이 있었다”며 “그 당시 폐배터리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금이라도 사용 후 배터리 조례안 발의를 잘 한 것”이라며 적극 동의했다.

이정우 위원(홍양·더불어민주당)은 “폐배터리 문제는 정부도 관심이 많고, 중앙 및 다른 시도에서도 폐배터리 사업을 많이 추진할 텐데 충남만의 차별화된 시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3~4년 뒤 전기차 사용 후 자동차 폐배

터리 배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 자체인력으로 부족할 것”이라며 “배터리 업체와 협의하고, 발전 방향과 경제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편성 요인에 있어 국가재정 추경에 따른 연계를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국비에 맞춰 도비를 매칭하는 예산 편성이 아닌 가 한다”며 “예산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디지털기업 성장지원 사업 행사 등 여러 전문가들을 초청할 때 행사비 절감을 위해 도내 공간은 충분히 활용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환기자

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위, 균형발전 위한 인구정책 논의

윤기형 의원 “인구증대 정책서 축소사회 적응 및 돌봄 해결 등 인구관리 정책 전환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이틀간 전주에서 제5차 정기회를 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시대 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 관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건의’ 안건을 논의하고, ‘인구정책 사례와 지방소멸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

특위 위원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의원(논산1·

국민의힘)은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감소, 수도권 인구집중, 초고령화라는 인구정책 삼중고를 동시에 풀어나가야 한다”며 “기존의 인구증대에서 인구관리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저출산 해소 및 청년층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축소사회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고령층의 돌봄문제 해결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환기자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는 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포함한 중앙부처 사업 공모시 인구감소지역을 10% 이상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우선 배정이 어려울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10% 이상 가산점을 부여하고, 선정될 경우 세제·재정·금융 등의 인센티브를 10% 이상 추가 지원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지역소멸에 지방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광역시도의회에서 대표로 위촉된 의원들이 지방의회 차원의 대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김경환기자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 당선인 기사실 방문



지난 10일 총선에서 유일하게 충남지역, 3선에 당선된 성일종 당선인이 17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졌

다. 성 당선인은 서산·태안의 공약을 설명하면서 분리된 도시가 아니라 서산·태안은 하나의 도

이산시의회, 오는 19일 ‘의원회의’ 개최

이산시의회의장 김희영(은)은 오는 4월 19일(금) 10시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4년 제2회 의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의원회의 집행부안건은 ▲이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일자리경제과) ▲재산세 도시지역별 적용대상지역 지정(세정과) ▲아트밸리 아산제63회 상용 이순신축제 추진 보고(문화예술과) ▲(재)아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문화예술과) ▲‘남산 안보공원’이전·조성계획 보고(사회복지과) ▲아산시 공설장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보고(경로장애인과)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신설 관련 장소 재검토 보고(총무과) ▲아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추천(기후변화대책과) 등 8건이며, 관련 부서장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자체 협의 사항은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예결특위 구성(안) 등 3건이며,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보령시의회, 행감특위 위원장에 ‘추보라’ 의원 선임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도(은)는 오는 6월 예정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대비해 제257회 임시회 중인 17일,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추보라<사진>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정근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다. 박 당선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작성의 건”을 심의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실시될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활동하게 되며, 보령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요구 및 행정책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추보라 행감특위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보령시 행

정사무 중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을 지적·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비판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9일 제2차 분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청양=박재희기자

축산분뇨 활용한 농가 생산비용절감 및 축산경쟁력 강화

강선구 의원, 제29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



유류비 및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농업 생산 원가 폭등에 대한 예산건의회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강선구 의원(더불어민주)은

산업을 제29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예산건 가축 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이 16일,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축 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를 통하여, 농업과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축

산분뇨를 펠릿화 등 연료화하여 시설하우스의 열공급 및 전기생산 설비 지원, 연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류비, 전기요금 상승 및 폭등으로 인한 시설하우스의 생산원가 절감과 더불어 충남도내 최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농업의 부담을 경감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예산=박재희기자

충남도의회, 지역출판 진흥 위한 토대 마련

빙한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가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빙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이 1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빙 의원은 “2023년 기준, 우리 충남에는 1380여 개의 출판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2021년 이후 매년 100여 개 이상의 출판사가 등록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1~2인의 영세한 출판사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계청 지역별

출판업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일 반 서적 출판업(종이매체출판업)의 경우 충남은 2016년 35억1200만 원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24억3900만 원으로 31% 가량이나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기록이 없으면 지역의 역사도 없으며, 기록이 없는 곳에 문화가 융성할 리 없다”며 “지역출판이 살아야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복원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도시사의 책무,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다양한 지역출판 진흥 사업, ‘충청남도 지역출판심의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지역의 삶과 문화, 지역의 여제와 오 늘을 기록하는 지역출판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방소멸시대!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청양=정성범기자

내포신도시 내 영재학교 설립지원 근거 만든다

이상근 의원 “충남주력산업 성장 위한 인재 양성의 미중물 될 것”



충남도의회가 내포신도시에 영재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를 명시했다. 또한 ‘이전기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기준’에서 과학영재학교 설치비 및 상한액 기준을 500여 원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에서 ‘이전기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기준별표2’에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예측하기 어려운 신규 이전기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건설소방위원회는 안 제 16조의 자금지원에 있어 별표2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안하였고, 신규 지원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이

뤄질 수 있도록 확대 수정되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수부도시인 내포신도시에 2026년 착공되어 2030년 조성될 예정인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반도체와 모빌리티 등 충남 주력 산업의 인재 양성과 기업 인력공급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통과된 조례안이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인재 양성의 요람을 설치하여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을 이끄는 충남을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고, 나아가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을 통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환기자

당진시의회 ‘의원연구모임’ 간담회 개최



당진시의회가 지난 16일, 대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모임(농업정책, 인구청년정책, 역사문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당진시의회는 농업정책연구모임(대표의원 김명진), 인구·청년정책 개발 연구모임(대표의원 조상연, 역사·문화 연구모임(대표의원 심의수, 장애인일자리 정책개발 연구모임(대표의원 한상화) 등 총 4개의 연구모임이 활동 중에 있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장애인일자리 정책개발 연구모임이 1차 간

담회를 갖고 연간 활동방향과 연구주제 선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16일에는 농업정책연구모임과 인구·청년정책 개발 연구모임(대표의원 조상연, 역사·문화 연구모임(대표의원 심의수, 장애인일자리 정책개발 연구모임(대표의원 한상화) 등 총 4개의 연구모임이 활동 중에 있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장애인일자리 정책개발 연구모임이 1차 간

담 후 부서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문화 연구모임 간담회에서는 당진시 총괄건축가 윤여갑 교수와, 권순희, 정희다 당진시 공공건축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읍성 복원과 승리봉 공원 조성 및 읍내동(구도심)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인구청년 정책개발과 지난 12일 실시한 장애인일자리 정책개발 연구모임에서는 연구 영역 선정 및 연구모임 방향성 설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은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구성 운영되어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으며, 향후 다양한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오는 11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세종시의회, 자율방범대 활성화 위한 연구모임 2차 간담회



세종시의회는 1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현정·사진)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연구모임 회원들은 ‘세종형 자율방범대 운영 방안 연구용역’ 과제 선정과 자율방범대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 논의 결과 연구 과제로 ▲시 자율방범대 여건 분석 ▲자율방범대 참여 요인 실증 연구 ▲자율방범대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실증적 활성화 대책 ▲연구용역 결과의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등을 확정했다.

또한 지역 치안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참여도 제고 노력과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마련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현정 대표의원은 “앞으로 연

구용역을 통해 세종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율방범대 역할을 강화하고 더불어 그 영예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이현정 대표의원, 김동진, 김충식, 유인호 의원을 비롯해 관계 전문가 등 10명의 참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3월 발족식을 진행한 후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세종=김태선기자

국내 인구 2명 중 1명 “독신 동의… 결혼해도 아이 NO”

여성가족부, 2023 가족 실태조사 결과… ‘자녀 없이 사는’ 1인 가구·1세대 가구 60% 육박

결혼과 출산이 가장 많은 시기인 20대의 19.0%, 30대의 44.4%가 각각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 계획에 대해 아예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도 20대는 65.3%, 30대는 27.9%로 나타났다. 혼자 살거나 자녀가 없는 1세대 가구(부부만)의 비율은 10가구 중 6가구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절반 가량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독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족실태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의 변화와 생활 실태 전반을 전국 단위로 조사하는 국가 승인 통계다. 여가부는 지난해 6월 1일~7월 31일 전국 1만2000가구의 만 12세 이상 가구원들을 대상으로 가족실태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에서 ‘자녀 계획’을 묻는 질문에 ‘있다’는 응답은 20대의 15.7%, 30대는 27.6%였다. 지난 2020년엔 자녀 계획이 있다는 20대는 8.9%, 30대는 18.2%로 집계됐다. 3년전과 비교하면 20대와 30대가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증가한 셈이다. 자녀 계획이 없다는 응답 역시 줄어들었다. 이번 조사에선 20대의 19.0%, 30대의 44.4%가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2020년 조사에선 자녀 계획에 대해 ‘없다’는 응답은 20대에선 32.5%, 30대에선 54.7%로 집계됐다. 자녀 계획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은 20대가 65.3%, 30대는 27.9%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지난 3년 동안 1인 가구와 1세대 가구 등 ‘자녀 없는’ 가구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1인 가구는 2020년 30.4%→2023년 33.6%로, 부부나 형제·자매가 함께 사는 1세대 가구는 2020년 22.8%→25.1%로 각각 3.2%포인트, 2.3%포인트 가량 늘었다. 지난해 기준 국내 10가구 중 6가구(58.7%)가 자녀 없이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는 줄었다. 지난해 2세대 가구 비율은 39.6%로 2020년 대비 3.6%포인트 감소했다. 3세대 이상의 가

구도 지난해 1.6%로 2020년(3.2%)보다 1.6%포인트 줄었다. 이에 따라 평균 가구원 수 역시 2020년 2.3명→2023년 2.2명으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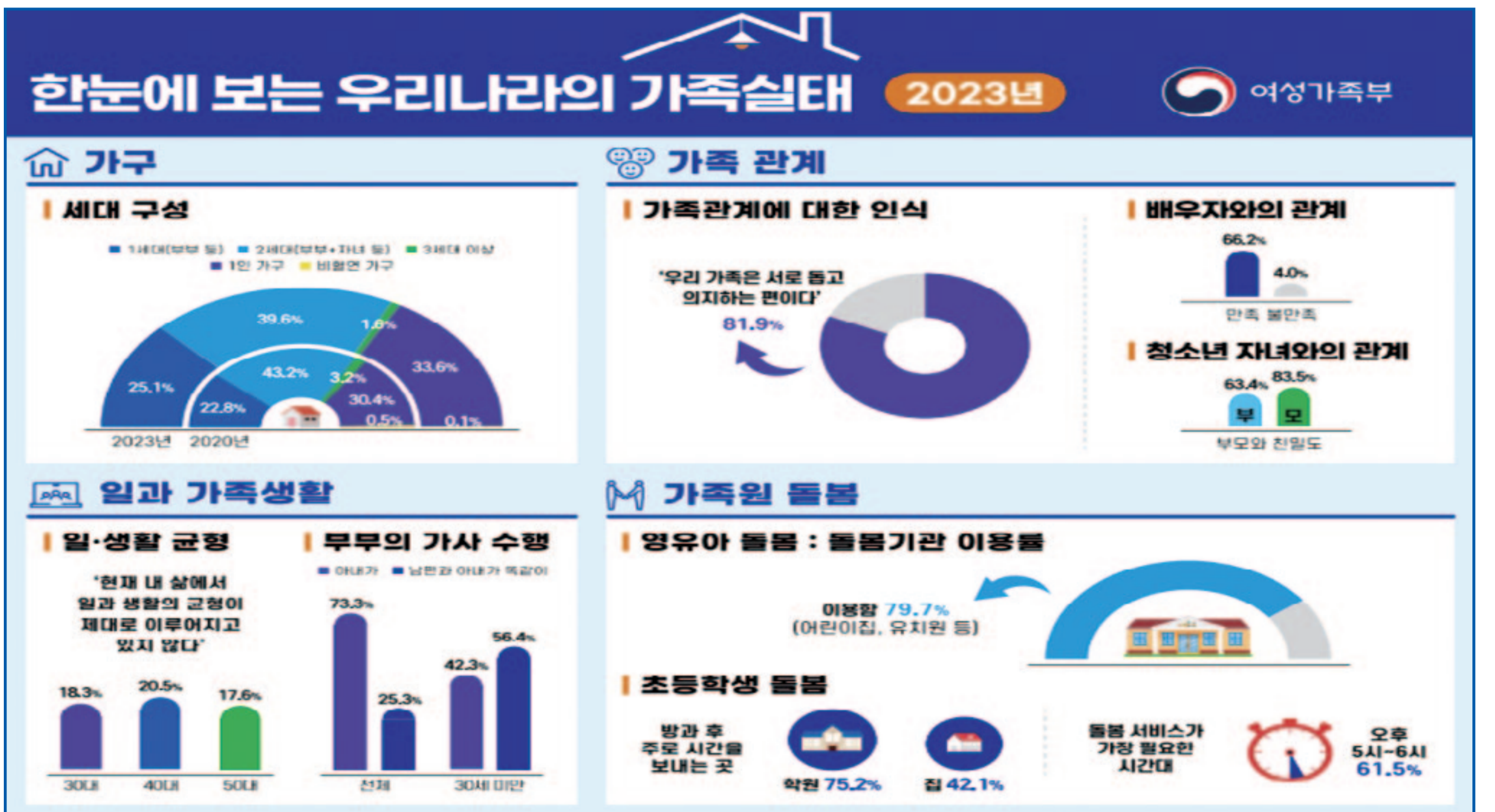
국내 인구 2명 중 1명은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삶의 방식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조사에서 응답자의 47.4%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한 응답자는 34.6%에 달했다.

가사 수행은 여전히 전반적으로 ‘아내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노동을 아내가 한다는 응답은 73.3%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하는 비율은 25.3%, 남편이 한다는 비율은 1.4%로 나타났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어렵다는 인식도 늘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직장일 때문에 개인 생활이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이 24.5%로 가장 높았으며, 30대(18.3%)와 40대(20.5%)는 응답자 5명 중 1명 꼴로 ‘현재 내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이행에 속도를 높여겠다”며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일·생활 균형 지원 등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가족친화 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보령시의회 BORYEONG CITY COUNCIL

창간 18주년

소통하는 열린의정 실천하는 보령시의회

제9대 보령시의회 전반기 연구실

| | | | | | | | | | | | |
|----|-----|----|-----|----|-----|----|-----|----|-----|----|-----|
| 의장 | 박상모 | 의정 | 김중호 | 행정 | 백성현 | 기획 | 이정근 | 법무 | 백영광 | 총무 | 성태용 |
| 의정 | 최은순 | 행정 | 김정훈 | 기획 | 조장현 | 법무 | 김재관 | 총무 | 서경옥 | 연구 | 추보라 |

33483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77 | 대표전화 : 041)935-1458 | 팩스 : 041)930-4029 | www.brcouncil.go.kr

은둔형 외톨이 맞춤형 지원책 마련

市, 6월부터 500여 명 첫 실태조사... 개별 심층 면접·초점집단면접 도입

대전시는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정서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첫 실태조사 작업을 착수했다. 시는 지역 내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통계와 국내의 사례 등 사전 선행연구와 조사표 개발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6월부터 8월까지 대전사회복지서비스원을 통한 본격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은둔형 외톨이 500여 명(20대 200명, 30대 200명, 40대 이상 100명 내외)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접을 비롯해 은둔형 외톨이 가족 및 현장 전문가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조사대상자 특성을 고려해 URL서비스 구축(QR코드)을 통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내용은 ▲조사대상자 성별·나이

▲은둔 기간·계기 ▲하루 일과 등 생활 습관 ▲신체·정신건강 ▲관계와 도움, 복지서비스 욕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 연말까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과제와 개선방안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높은 추진 과제를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민원협력망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고 이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계기로 사회적 고립과 은둔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실태조사와 함께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선 기자

● 동 정 ●

미래직업교육센터 개소식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18일 오전 10시 대전 산업정보 등학교에서 열리는 미래직업교육센터 개소식 참석.

기관단체장협의회 정기회의

박희조 동구청장= 18일 오전 11시 대전 보건대학교에서 열리는 2분기 동구 기관단체장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효문화마을 문화예술공연

김계선 동구청장= 18일 오후 2시 효문화마을 관리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2024년 1차 효문화마을 문화예술공연' 참석.

청춘컬렉션 1회차 큐레이팅

서철모 서구청장= 18일 오후 4시 서구청 2층 전시관에서 열리는 2024년 청춘컬렉션 1회차 큐레이팅 참석.



N-농협은행 도안동로지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캠페인
N-농협은행 도안동로지점(지점장 최병갑)은 도안천년나무11단지아파트 경로당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최근 노인 피해가 다발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에 대한 사례 및 피해정보와 예방방법을 알리고, 농협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보안기능에 대해 노인들에게 제공했다.

충남대병원 영양팀 강하이 팀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받아

충남대학교병원(병원장 조강희) 진료지원실 영양팀 강하이 팀장(사진)이 최근 대한병원협회 제 65차 정기총회에서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강 팀장은 충남대병원에서 20년간 임상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임원환자의 건강회복을 위한 급식과 맞춤형 임상영양서비스에 힘써왔다. 특히,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ESG 급식경영, 임원환자 맞춤형 영양교육, 영양불량환자의 영양지원 등 변화하는 보건 의료 환경에서 국민의 영양 및 식생활 개선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강하이 팀장은 "앞으로도 우리

병원에 입원하시는 환자분들의 건강한 식사와 영양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으며, 아울러 우리 주변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의 영양개선에 관심을 기울이는 영양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대병원 진료지원실 영양팀 영양사 전원은 임상영양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보건 의료전문인으로서 환자에게 일반 식 및 치료식·관급식·분유식 등의 환자식 제공과 질환별 영양상담 및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송병배 기자

반려동물 문화교육 '찾아갈개 기다려냥' 실시

유성구,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20개소 방문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10월 10일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20개소를 방문해 반려동물 문화교육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교감, 찾아가는 동감교육 찾아갈개! 기다려냥!'을 실시한다. '찾아갈개! 기다려냥!'은 유아동기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장려하고자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삶'을 주제로 ▲반려동물의 종류와 특징 ▲반려동물 공공예절 ▲동물학대 예방 ▲길고양이 보호관리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로 찾아가 어린이들이 반려견을 직접 만져보고 안아보는 교감할

등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동물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유아동기의 반려동물 문화교육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이해하는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 유성구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도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교감, 찾아가는 동감교육 찾아갈개! 기다려냥!'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지역산업과(042-611-2785)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선 기자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로 받고 탄소중립 실천 함께해요"

대덕구, 나무 36그루 등 환경자원 절약 효과 눈길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지방세 정보를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로 안내하는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지방세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경우 종이 고지서 30만장을 줄여 연간 물 300t, 탄소배출권 846kg, 원목 36그루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며, 고지서 분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정기분 지방세(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가 부과되는 달의 전달까지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카카오톡 알림톡 신청 방법은 카카오톡 접속 후 '카카오페이'에서 '청구서' 페이지에 접속해 '지방세'를 누르고 서비스 동의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우리 대덕구민들이 지방세 전자 송달 및 자동납부 가입으로 환경을 살리고 납부 편의는 물론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보다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서구, 2024년 평생교육협의회 회의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지난 16일 구청 보라매실에서 서구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2024년 평생교육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서구 평생교육협의회는 의장인 서철모 구청장을 포함해 평생교육 기관·단체장 등 평생교육에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회의는 2024년 서구 평생학습원 주요 업무 보고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서구 평생학습원은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목표로 64개 정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맞춤형 사이버 평생학습, 서구의 대표적인 평생학습 강자인 사람이지치대학을 운영하며, 관내 4개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와 역사 문화탐방대, 행복배움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 생활 속으로 찾아가고 있다. 특히, 작년에 대전시 최초 선정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통해 올해에도 장애인들의 배움의 열의를 채워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갈매리 합커뮤니티센터 내 평생학습원 신축 이전으로 더 새롭고 확장된 공간에서 구민들에게 질 높은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철모 구청장은 "평생교육협의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평생학습도시에 걸맞게 다양한 맞춤형 교육의 기회를 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동구 마을교육 활동가 발굴 나서

이달 30일까지 접수, 7개 팀 선발 최대 400만원 지원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2024년 동구 행복이음 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교육 공동체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을교육 공동체 공모사업은 동구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마을-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마을교육 활동가를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총 7개 팀을 선발해 마을교육형(구성원 5인 이상, 교육공간 보유 필수) 4개 팀에 각 400만 원, 역량강화형(구성원 3인 이상 3개 팀에 각 2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구성원의 주소지·생활권이 동구인 교육 공동체 및 동아리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동구인 비영리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마을교육 공동체는 프로그램 운영비와 사업 전반에 관한 전문가 상담, 마을교육 활동가 역량 강화 과정, 보험(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된다. 박희조 동구구청장은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분야를 담당, 마을교육 활동가 역량 강화 과정, 보험(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지역 우수선수의 역의유증을 막고 경기력

중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모집

건강위험요인 대상자에게 모바일 앱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실시



중구구청장 김계선은 오는 26일까지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참여자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란 만성질환

모집 대상자는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19세 이상의 중구민 또는 중구 소재 직장인으로 건강위험요인(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고밀도콜레스테롤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로 등록)이 가능하다. 단,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진단을 받았거나 이와 관련된 약을 복용 중인 경우는 참여할 수 없다. 참여방법은 전화 신청으로만 가능하며 최초검진(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복부둘레)을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보건소 건강관리팀(042-288-8066, 8070)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참여자들의 건강한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주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대전상공회의소-대전시체육회 우수선수 후원 업무협약 체결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는 지난 16일 대전광역시체육회(회장 이승찬)와 시체육회에서 각 기관과 우수선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선수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승찬 대전시체육회 회장, 박균의 ㈜아이씨푸드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상공회의소와 대전시체육회는 대전지역 우수선수의 역의유증을 막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함께 전개한다. 대전상공회의소는 지역의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후원기업 섭외에 앞장서는 것이 이번 업무협약의 골자이다. 한편, 대전상의 회원사인 ㈜삼진정밀은 유도 종목 문규선 선수를 일대일로 지원하게 되며, ㈜아이씨푸드는 레슬링 강현진, 수영 김재윤, 복싱 양태민 선수를, ㈜한스코는 당구 유승우 선수를 후원할 예정이다. 송병배 기자

제15회 서구미술작가초대전

대전서구문화원, 23~29일까지 1층 갤러리서 열려

대전서구문화원(원장 장석근)이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와 서구가 후원하는 제15회 서구미술작가초대전이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대전서구문화원 1층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서구미술작가초대전은 대전 서구 지역에서 거주 및 활동하는 미술작가들을 초대해 매년 개최하는 전시회로 올해는 총 97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분야별로는 한국화 14명, 양화(수채화) 41명, 서예 12명, 문인화 9명, 입체 11명, 기타 10명이다. 장석근 원장은 "대전서구문화원 송병배 기자

NAVER 들어보세요! 네이버스토리

'대전투데이'를 검색하세요

우리/동네



천안시청소년재단-천안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참여 확산 위한 협약

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상경은 지난 16일 천안시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오선희)와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자원 봉사 참여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소년 활동·상당·복지 등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 ▲진로체험, 학교연계 및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의 자원봉사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 ▲청소년 활동 관련 상호협력 등을 통한 지역 청소년 거점 역할 수행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한상경 대표이사는 "천안시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역량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받아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천안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방안 마련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 개최

천안시자원봉사센터는 17일 90여 개 자원봉사단체 임원 1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단체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봉사 활동과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센터와 단체 관계자 등은 ▲자원봉사센터 주요 사업 설명 ▲자원봉사인증기준 및 지침 안내 ▲대규모 지역 행사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 ▲자원봉사단체와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협의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올 한해도 자원봉사단체들과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사회 각 분야에 자원봉사 활동들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김정환기자



연세하임사부인과 청소년 복지 위해 후원금 200만원 전달



천안시 동남구보건소·주식특골프앤리조트 중·장년 자살예방사업 '미음품 사업장' 업무협약

민주갑·을·병 문진석·이재관·이정문 당선인, 17일 기자회견

“단합된 힘으로 천안발전 완성”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충남 천안시 갑·을·병에 출마해 당선된 문진석(천안갑), 이재관(대전을), 이정문(천안병) 당선인은 17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단합된 힘으로 천안발전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선인 3명은 “이번 총선 결과는 천안시민의 승리”라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민생 회복, 민주주의 복원,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평가했다.

재선에 성공한 이정문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육사 이전은 사실상 무기한 보류됐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유치부 구제적인 계획도 없다”면서 “천안의 현안인 천안도심철도 지하화 추진도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



했음에도 정작 정부·여당은 서울·대전·부산 등만 거론하고 천안은 거론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대전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한 이재관 당선인(천안을)은 “정부는 2년 내내 건전재정을 핑계로 핵심 예산을 봉팅이로 삭감했지만, 그

결과는 관리재정수지 87조 원 적자였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천안발전을 위한 공동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각각의 상임위에서 사업추진, 법안 제정,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 갑·을·병 공동공약인 GTX-C 천안 연장, 신방-북천 구간 등 추진 예산을 봉팅이로 삭감했지만, 그

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재선에 성공한 문진석 당선인(천안갑)은 “천안갑의 핵심 과제인 천안-청주-독립기념관~병천-오창국가산업단지~청주공항을 잇는 철도구축 및 천안도심철도 지하화, 천안을의 총축장 이전부지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및 충남·경기 상생산업단지 조성, 천안병의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 완성 및 특구 3종 세트 유지를 함께 추진하겠다. 체감할 수 있는 천안이 발전을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진석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천안발전을 위해 예산 5조 6000억 원을 확보했고, 공약 이행률은 78.7%를, 이정문 당선인은 예산 5조 8000억 원 확보하는 한편 공약 이행률은 76.5%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동정

출범식



박상돈 천안시장 = 18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4 미래비전단 출범식에 참석.



천안 노태공원, 화려한 빛의

‘미디어아트’로 물든다

천안 노태공원이 화려한 빛의 ‘미디어아트’로 물든다.

천안시는 노태공원 진입광장에 조성된 높이 6m, 길이 256m 규모의 ‘미디어 월’을 통해 천안의 특색을 담은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미디어 월을 통해 야간에는 천안의 특색과 명절, 크리스마스 등 트렌드를 반영한 미디어아트와 계절별 테마 영상, 시정 홍보 영상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상영한다.

주간에는 백일 이미지로 ‘인왕제색도’를 표출해 노태공원의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했다.

미디어 월은 4월 한 달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정식 운영한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은 월·수·금요일 오후 8시부터 8시 20분까지 20분간 운영되며, 다음 달부터는 평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역동적인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인다.

시는 도심 속 휴식공간인 공원에 보행자 눈높이에 맞춰 조성한 미디어 월을 통해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디어 월을 통해 미술작품 이미지를 송출·전시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격려, 소통 메시지 등을 전달할 방침이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농업기술센터, 토양

전염병 진단서비스 실시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 과채류 재배 농가 대상 진단키트를 활용한 토양전염병 신속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양전염병 진단키트는 연작, 이상기후 등 작물의 생육환경 불량으로 토양전염병 피해로 발생하는 시들음병, 풋마름병, 역병, 무름병 등 4종의 토양전염병 감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벨트, 고추, 딸기, 토마토, 배추, 양파 등의 채소작물에 이용할 수 있다.

천안시소를 포함한 7개 지소에 총 102점(풋마름병, 시들음병)을 보급하였으며 지역별 주요 작물에 따라 보급량을 달리하여 농가가 원하던 연제는 진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토양전염병 진단키트는 병원생 세균에 대한 항원항체 면역반응을 이용해 진단하는 방법이다. 휴대용 진단 도구로 근권부 토양 또는 원예작물 절편을 시약에 섞어 3~4방울 떨어뜨리면 10분 후 감염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진단서비스 신청은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내방 또는 전화접수를 통해 토양전염병 진단요청이 가능하며 현장 방문 진단 무료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토양전염병 감염 시 식물체 고사, 시들음, 갈변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되며 생육 저하 및 생산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심 증상 발생 시 지체 없는 연락과 윤작, 토양검정을 통한 균형시비, 경운 등 토양관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안서동 대학가 진입로 ‘굴다리 대학명 현수막’ 호응 최고

천안시청 ‘청년담담관’서 진행... 추후 유관부서와 협의해 개선할 계획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상명대학교, 호서대학교 등 안서동에 위치한 대학에 진입하는 굴다리에는 ‘천안의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문구와 함께 각 대학의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안서동은 총 5개 대학이 밀집돼 약 5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오가는 곳. 천안시청 청년담

담관은 올해 입학식을 즈음해 대학으로 진입하는 굴다리에 대학명을 새긴 현수막을 걸었다.

입학식 즈음 걸린 현수막 덕에 방문하는 이들도 더욱 쉽게 대학을 찾아올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대출 이자 지원

신용평점 하위 20% 소상공인 대상·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4천만원

천안시가 내수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미소금융충남천안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신용평점 하위 20%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입학식을 즈음해 대학으로 진입하는 굴다리에 대학명을 새긴 현수막을 걸었다. 입학식 즈음 걸린 현수막 덕에 방문하는 이들도 더욱 쉽게 대학을 찾아올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천안=이정복기자

실행 후 4회 연속 성실 상환 시 금리 1%를 인하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이며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의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이 하위 20%인 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4,000만

천안도시공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업무협약 체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운영 사업 위한 협약

천안도시공사새시장 한동홍, 이하 공사는 공사 본부에서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대표이사 박한수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운영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중합운동을 비롯한 공사 사업장 총 24개소에 90개의 충전시설이 구축될 예정이며, 중합운동장 내 시민체육공원에는 한충전 및 컨소시엄사업(현대자동차)가 대규모 충전시설인 350kW급 충전시설 E-pit 67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사에서는 부지제공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한충전에서는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을 전담·관리해 천안시의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홍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더 나아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는 환경부 급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등 전국 3천800여 개의 충전시설을 설치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현대자동차 그룹

제철의 전문기업으로 공사에서 진행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자 모집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계열의 전문기업으로 공사에서 진행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자 모집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번 협약은 “박람회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K-컬처 박람회 기간 중 운영된 식품포도 감염병 예방 수칙인식·식품매개 감염병과 진드기, 모기, 파리 등 매개체로 인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소독·방역등을 논의했다. 또한, 감염병 유증상자 발생 시

천안시, K-컬처 박람회 감염병 제로 유관기관 대응체계 구축

안전한 박람회를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및 협력체 강화 간담회 개최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K-컬처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지난 16일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 회의실에서

K-컬처박람회 감염병 제로 유관기관 대응체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남감염병관리지원단, 충남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각 기관별 대응체계 점검과 행사장 일원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도 평가를 실시했고, 독립기념관 내부전시장의 냉각수 검사를 통해 냉방 시 호흡기로 감염될 수 있는 레지오넬라증을 사전 예방할 예정이다.

이런기 서북구보건소장은 “박람회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K-컬처 박람회 기간 중 운영된 식품포도 감염병 예방 수칙인식·식품매개 감염병과 진드기, 모기, 파리 등 매개체로 인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소독·방역등을 논의했다. 또한, 감염병 유증상자 발생 시

천안=김정환기자



대전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CPTED) 사업 완료 대전시는 서구 갈마동(갈마노인복지관 인근), 동구 자양동(우송대학교 동캠퍼스 인근), 유성구 관평동(중일고등학교 인근) 일원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사업을 마무리했다.



보령해경, 기후위기 대응 위한 블루카본 조성 캠페인 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민)는 1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령시 오천면 소영 갯벌에 염생식을 파종 및 식재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예산성폭력상담소, 예산전자공고 등갯길서 폭력예방 캠페인 예산군은 지난 16일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등갯길에서 학교 폭력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예산군·성폭력상담소·예산경찰서·학교 임원들과 함께 진행했다.



건협 대전충남지부, 정부대전청사 입주 공무원 건강캠페인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대전충남지부(본부장 상국진, 이하 건협 대전충남지부)가 지난 16일 정부대전청사 지하 다목적홀에서 입주한 공무원 및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위한 건강캠페인(체성분 검사, 뇌파맥파검사, 혈당, 혈당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금산소방서, 임야화재 및 부주의 화재 예방 위한

관내 마을이장단 화재예방교육



금산소방서(서장 김종욱)은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임야화재 및 부주의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충청남도 봄철 화재 발생 건수는 총 3,174건

으로 인명 피해 130명, 재산피해는 590여원이 발생했다. 화재원인으로는 부주의 화재가 51.9%로 가장 많았다. 이에 금산소방서는 건조한 봄철 임야화재 및 부주의 화재 예방하고자 금산군 관내 10개 면의 이장단 월례 회의에 방문하여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화재예방교육은 임야화재 예방 교육, 부주의 화재 예방 교육, 자체 제작한 봄철 화재 예방 홍보물 배부 등이다.

금산=이정복기자

봄철 화재예방 대비 소방드론순찰

공주소방서, 의용소방드론순찰대 활용 산불예방 총력 대응

공주소방서가 들불 및 산불 발생이 잦은 봄철을 맞아 산불조심 기간인 오는 5월 15일까지 의용소방드론순찰대 자원을 활용하여 산불예방 활동과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공주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임야들불, 산불 화재의 경우 총 55건으로 봄철 80%, 겨울철 16%, 가을철 4%로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들불 발생 원인별로는 농업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 화재가 원인이다.

따라서 드론 장비 활용능력을 갖춘 의용소방드론순찰대를 운영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근거지역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등 화재발생 대비 드론순찰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주=정성범기자

특공 자격 얻으려 위장이혼까지

부정 주택청약 154건 적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점검 강화할 것"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 154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 불법

공급 등 주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는 2021년 558건, 2022년 251건, 2023년 184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으로 조사됐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하는 위장전입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다.

또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공급한다는 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7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3건, 부적격당첨자와 공

모해 계약포기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1건,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한 1건 등 불법공급 5건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도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 '성웅 이순신축제'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아산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성웅 이순신축제'를 앞두고 원활한 축제 진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중점 정비 대상은 관내 주요 도로와 시내권에 설치된 노후 하천 간판, 인도 등에 설치된 현수막과 전단, 에어라이트 등이다. 특히 축제 전인 오는 19일부터 종료되는 28일까지 집중적으로 정비에 나설 계획이며, 지진 철거가 가능한 광고물은 철거를 권고하고, 미이행 시 수집된 증거 자료를 활용해 게시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를 대표하는 '성웅 이순신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 정비와 제도에 힘써 깨끗한 도시, 아트밸리 아산'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페비닐 등 버려지는 플라스틱 '인삼 지주대'로 재탄생

농촌진흥청, 환경부 등 협업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 등록해 농가 보급에 나선다.

우리나라 인삼 재배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주대 등 목재 구조물 80%는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수입된 목재다. 여기에 사용하는 수입 목재는 약 16만 톤으로 연간 700억 원에 이른다. 수입 목재를 사용할 경우,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데다 내구성이 떨어지는 목재 특성상 교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인

삼 지주대 재활용 제품 대체 활성화 사업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은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확대 보급을 지원하게 됐다.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에 사용되는 재생 플라스틱은 버려진 페비닐과 플라스틱을 이용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개발한 물질 재활용* 제품이다.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구조물은 구조물 해체 후에도 재활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재생 플라스틱을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로 썼을 때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굽힘강도를 시험했다. 그 결과, 인삼 재배 기간인 6년 후에도 굽힘강도는 기존(SMPA) 이상을 유지했으며, 각종 기후에 견디는 내후성 시험과 열노화 시험

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환경위해성 평가에서도 유해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토양 등 농작업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이와 함께 재생 플라스틱을 견고하게 연결해 구조물을 만들 수 있도록 '내재해형 결속조리개'를 개발했다. 이 조리개는 4kg 이상의 미끄럼 저항력을 가져 지주대 각 부분을 단단히 결합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2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 심사위원회를 열고 기존에 목재를 적용한 내재해형 인삼 재배 시설 15종에 재생 플라스틱도 쓸 수 있도록 심의를 완료했다. 앞으로 인삼 재배 농가에 이를 보급하고자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기술적 지원에 나서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상안전요원 자격취득 교육 과정' 신설·운영

세종시시설관리공단-대한인명구조협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과 대한인명구조협회 총합회회는 다음 달부터 조직원수영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상안전요원 자격취득 교육 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 과정은 오는 5월 19일부터 6월 16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참가자들은 세종시 내 공단 운영 수영장 시설에서 안전근무자로 활동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세종시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품질 높은 체육시설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에 공공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프로그램 신청은 4월 17일부터 시작되고, 약 10명 내외의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이며, 참가 희망자는 세종시민의 경우 30만원의 자격취득비를 대한인

명구조협회에 납부해야 한다.

공단은 참가자들의 영병 훈련 및 기술 습득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조소연 이사장은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공단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안전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및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세종시민들에게는 이번 교육 과정이 안전한 수영장 이용은 물론, 지역 내 공공형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세종=김대선기자

당진소방서, 대안지도 숙박시설 화재... 신속한 소방력 동원



당진소방서는 지난 16일, 유인도서인 대안지도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숙박시설 화재를 신속한 소방력 동원으로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경 해당 건물에 불이 났다는 화재 신고가 처음 접수됐으며, 이에 소방서는 특수차량인 부인파괴방수차 등 소방차량 15대 및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44명을 출동조치한 뒤, 민간 여객선으로 소방차량을 선적

해 소방력을 난지도로 신속하게 투입하기 시작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최장일서장의 현장지휘로 신속한 내부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실시해 인접 건물 및 산림으로의 화재 확대와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이 화재로 건물 일부 및 집기·비품 등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다. 당진=최근수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지방법양수신청, 표지시설 사업장 5개소 대상

중대재해 예방 안전협의체 개최



대전지방법양수신청(청장 류승규)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표지시설 사업장 5개소를 대상으로 재해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관계자 간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합동 안전협의체를 1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청에서 올해 추진 중인 표지시설 사업으로는 ▲20년 이상 경과된 항로표지(7기)의 정밀안전진단 ▲해상교통환경을 고려한 등대 설치 설계 ▲노후항로표지시설 정비 등 5개 사업이 있다.

이번 안전협의체에서는 사업장별 안전보건 관리대책 방안을 공유하였고, 업종별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사항 확인 등 참석자

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해결방안 검토를 통한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와 반부패(부패예방) 문화 확산과 청렴도 인식 제고를 위한 이해관계자 교육도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며, 청렴서한문도 함께 배부했다.

대전청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로 대전시수청과 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으로 안전한 바닷길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Sh수협은행 충청지역금융본부 임직원 '착한일터' 가입 Sh수협은행 충청지역금융본부(본부장 이흥구) 임직원이 17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유재욱)에서 추진하는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대학 총장 정부 증원 명령 복종 의무 없어”

지방 의대생들, 대학 총장에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인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의정 갈등에서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22일부터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32개의 민사소송이 전국에 걸쳐 22일

부터 시작된다는 의미다. 일단 22일에는 10개 대학 의대생들이 가처분 신청에 나서고 이후 10개, 12개 대학이 순차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변경된 내용은 5월 하순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로 최종 확정된다.

이 변호사는 “영화를 예로 들면 영화 상영 중지 가처분이 있고, 책은 출판 금지 가처분이 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대학 총장을 상대로 입시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및 입시요강)을 수험생

들에게 발표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까지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에헨연속 성적”이라고 부연했다.

현재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은 총 6건이다. 법원은 이 중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비롯해 박단 대한전공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까지 총 4건을 각하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12일 오후 “40개 대학 중 24개 의대교수협의회가 소속 대학 총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내용증명에서 각 대학교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2000명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장인 총장님이 행정소송의 원고로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의대생들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정복기자



당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생명존중공동체인전 합동 캠페인 당진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 대덕초등학교 정문에서 지역유관기관(당진경찰서, 당진시청, 녹색어머니회, 전국 모범안전자녀연합회 당진지회 등)과 함께 학교폭력예방, 생명존중, 공동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산교육지원청 학교 밖 전문학습공동체 대표교사 협의회 개최 이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석우)은 지난 15일, 청내 대회의실에서 2024 학교 밖 전문학습공동체 대표교사 4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학교 밖 전문 학습공동체 운영유의 사항안내 ▲학습공동체 간운영 사례 공유 ▲학교 밖 전문 학습공동체 활동내용을 학교인 동료교사와 공유할 방안 논의로 구성했다.



대전유전초등학교, 조희승 금강유역환경청장 초청 미세먼지 환경교육 실시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7일 늘봄학교의 조기 인착을 위한 교육기부의 일환으로 조희승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대전유전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립춘천숲체원,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나무를 심다, 미래를 심다' 식목행사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국립춘천숲체원은 17일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회장 김선배)와 함께 숲체원 내 폐 군사시설 부지에서 '나무를 심다, 미래를 심다' 식목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춘천시 RCY 청소년 단원과 양 기관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청매실 등 수목250그루를 심어 폐 군사시설을 생태 숲으로 복원했다.

2024 보령교육 기본 방향

교육비전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성장하는 보령교육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성장하는 보령교육,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살아 행복해지는 보령교육을 실현하고 교육의 중심은 학생과 현장인 학교에 있으며, 모든 교육행정의 중심은 학생과 학교에 두고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미래를 실현하고자 하는 보령 교육공동체의 책임을 표한함.

교육지표

튼튼한 기초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

보령교육은 미래사회 삶의 주체인 우리 학생들이 튼튼한 기초를 다지고 범지구적인 경쟁력 연대력 협력력 평화의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실천 중심 환경교육과 생태시민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세계시민을 육성하고자 함.

중점사업

- 보령 독서인문교육 강화 「친구와 함께하는 책이네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푸른 보령」 환경교육

충남교육청,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공감주간 운영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장애공감 문화 행사 열려



충남교육청(김지철)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공감 문화 확산과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장애공감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장애공감 주간에는 ‘블립이 아닌 다름으로, 편견이 아닌 공감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장애 공감 문화 공연과 체험행사가 운영되며, 17일(수)에는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간부들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쿠키를 나누어주며 장애공감 체험 행사일정을 홍보했다.

이날 행사는 보령정심학교와 대전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하는 타이랩 주간 ‘초아’와 ‘한바퀴 양상발’팀의 문화공연과 함께 충남장애인체육회 소속

실업팀의 특수체육 종목인 ‘보치아’와 ‘골볼’ 체험행사를 가졌으며, 천안인에 학교를 비롯한 도내 4개 특수학교 학생이 만든 생선품 전시와 음료 시음회가 있었다.

이날 참석한 김지철 교육감은 “장애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장애인의 날에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편견과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라며, “충남교육청에 일상적인 장애 공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정환기자

금산교육지원청, 등굣길 교통안전 점검

관내 초등학교 4교(금산초·금산중앙초·금산동초·추부초) 중심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법연)은 17일 오전 8시부터 관내 초등학교 4교(금산초, 금산중앙초, 금산동초, 추부초)를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횡단 보도와 학교 진입로에서 교통안전 상황 점검과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통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캠페인이 되었으며 지역 유관기관 및 봉사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 관, 군이 함께하는 적극 행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과 더불어 WEF 센터의 생명존중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여 금산군민과 학생들에게 안전과 예방을 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사고 및 PM(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아지면서 안전장비 없이 사고가 발생하는 경

이법연 교육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학



교원장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함께 참여한 금산군청, 금산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자율방범연합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금산=이정복기자

충남청소년과학페어 디지털 융합과학 공주시 대회 개최

공주교육지원청 “미래 과학기술인재들의 창의 융합 한마당”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은 17일, 공주시청의나루공주생명과학고에서 2024년 제42회 충남청소년과학페어

디지털 융합과학 부문 공주시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관내 중학교 중 7교에서 참가했으며, 2명이 1팀이 되어 ChatGPT, Microsoft Bing, 휘튼, Gemini 등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산출물을 제작하고 PPT, 미러캔버스, Gamma 등의 도구를 활용해 발표했다.

이번 대회는 화성에 지속 가능한 도시를 창의적으로 연출하는 것을 주제로 했으며, 학생들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현상이었다.

현재의 과학 기술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과학 기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창의적인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으며,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창의 융합적 사고력을 발휘하는 시간이었다.

구기남 교육장은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분야이기에 관련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며 “인공지능과 미래 과학 기술을 활용해 창의적 발상을 이끌어내는 이번 대회처럼 학생의 과학적 소양과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세종시교육청, 학생참여 중심의 독도체험관 재개관

유·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독도체험교실 운영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새롭고등학교(세종특별자치시 새롭서로 68) 1층에 있는 독도체험관을 지난 3월에 재개관하여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블론텐츠를 강화했다.

독도체험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9:00부터 17:00 사이에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되며, 독도 체험관에 상주하는 운영실무사가 독도의 자연, 역사 등에 대한 수준 높은 해설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체험 활동을 도와준다.

최근 독도와 관련된 여러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참여형 독도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독도체험관은 ‘독도의 소개’, ‘독도의 역사’, ‘영상체험존’ 등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다.

‘독도의 소개’에서는 1,500로 축소한 독도 모형, 양방향 해저지형, 독도의 다양한 생물 등에 관해 소개하고 있으며, ‘독도의 역사’에서는 역사적지리정보국법적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독도영토주권을 입증하는 여러 사료를 전시하고 있다.

특히, ‘영상체험존’에는 독도 바닷속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대형 실감영상관, 독도 가상현실(VR) 체험, 숨은독도생물 찾기 키오스크 활동 등이 마련되어 있어, 체험관을 찾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독도체험관은 유초중고 학생들을 위하여 맞춤형 독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학생 수준별 심화 학습지와 교구를 제공한다.

세종=김태선기자

보령교육지원청, 디지털 융합

과학 부문 보령시대회 개최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은 17일 보령 창의예술꿈키움센터에서 중학생 6명 12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과학기술공학인문예수사학 등의 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충남 청소년과학페어 디지털 융합과학 보령시대회를 개최했다.

2023년에는 주어진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용해 산출물을 구현해내는 융합과학 대회가 치뤄졌는데, 올해에는 다가오는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기르기 위해 디지털이 가미된 대회로 변화를 꾀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협업·소통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융합적 사고능력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첨단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오전과 오후까지 총 300여분 가량에 걸쳐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한 팀에게 도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부여했다.

백정현 교육장은 “학생들에게 열린 사고를 갖게 하기 위한 많은 대회를 앞으로도 계획하고 있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규칙과 심사를 통해 우수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천안교육지원청,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 실시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청내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해 및 장애인식개선 연수 및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블립이 아닌 다름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장애를 바라보자는 의미에서 ‘다채로운 시각으로 만난 우리의 봄’ ‘다시봄’을 주제로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층 교육홍보관에서는 발달장애인 화가 작품 및 장애이해 관련 도서 전시가 진행 중이며, 17일 행사 당일에는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제 및 관련 연수가 진행되었다. 또한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점자를 알고 점자리플스티커 및 점자 명함 만들기 행사가 진행됐다.

다양한 행사 및 전시를 통해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도모 및 바람직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기회를 가졌다. 천안=이정복기자

대한민국 자전거대축제 in공주 사전 현장점검

공주시, 5월 4일부터 3일간 다양한 축제·경연 프로그램 마련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오는 5월 4일부터 3일간 행정안전부와 공동 개최하는 '2024 대한민국 자전거대축제 in 공주'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 16일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최원철 시장을 비롯해 김태완 도로과장, 시설 관련 부서 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금강신관공원에서 시작해 금강쌍신공원-연미산미술공원, 정안천 생태공원 등을 돌며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피었다.

특히, 핫플 공주라이딩 투어와 백제그랑폰도 구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구간 관리상태와 위험 요인 등을 점검했다.

최원철 시장은 "전국에서 약 3만명이 모이는 만큼 안전사고 대비와 편의시설 제공에 각별하게 신경 써 달라"라며 "공주의 역사와 관광자원이 자전거와 만나 시너지를 발휘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앞으로 생활 밀착형 그린 라이딩 관광도시로 브랜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주 금강신관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백제왕도를 품은 공주에서 바람의 노래를 듣다'를 주제로 3일 동안 다채롭게 진행된다.

핵심 프로그램인 '핫플 공주 라이딩 투어'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타



고 아름다운 공주의 자연 풍광을 달리는 라이딩 투어다.

총 4개 코스로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금강 댕댕 라이딩 ▲가족과 함께 구석기축제를 달리는 금강유채물 라이딩 ▲연인과 친구가 함께 하는 정안천 낭만 라이딩 ▲금강종주자전거길을 따라 달리는 전문가 라이딩 등이다.

5월 5일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1천여명이 참여해 사이클과 MTB 등 7개 종목에서 열띤 경합을 펼치는 '공주 백제 그랑폰도'가 진행된다.

코스는 금강신관공원을 출발해 의당면, 정안면, 사곡면, 신평면, 연미산 고개, 금강신관공원을 순회하는 총 101km로 치어리더 공연과 함께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한, 금강과 석장리박물관, 정안천,

금강종주자전거길 등 공주의 주요 관광지 4곳을 내 마음대로 골라 달리는 두바퀴 '핫플 공주 라이딩 투어'도 3일간 진행된다.

여기에 '자전거인 in 공주 페스티벌'과 전국 스피닝 대회, 전국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공모전, 레트로 자전거 경주 대회 등 다양한 축제·경연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점프를 비롯한 고난도 기술과 묘기를 선보이는 BMX 자전거 묘기 공연부터 5단 고층 자전거 공연 등과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이색 자전거 체험과 가상현실 자전거 게임, 자가발전 솜사탕 만들기 체험 등도 열린다.

행사 개막을 알리는 자전거의 날 기념식은 오는 5월 4일 오후 2시 금강신관공원 특설무대에서 개최되며 이후 500여명이 참여하는 '자전거 대행진'이 진행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 대한민국 자전거대축제 in 공주' 누리집(www.bikefestiva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사전 현장점검에 이어 17일 오후에는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함께 자전거 라이딩을 직접 해보며 코스 사전답사를 진행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본격 운영

당진시, 시설(온실)운영 경험·기술 등 영농 창업 위한 기회 제공

당진 시농업기술센터는 4월부터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석문면 삼하리)를 본격적으로 운영했다.

스마트팜 사관학교는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온실을 빌려주고, 시설(온실)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기회를 제공해 창업 후 실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경영실습과정이다.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제1기 스마트팜 청년창업교육 수요한 청년농업인 2명(스마트팜 1.070㎡ 규모)을 운영하며, 업체를 제

배하고 있다.

청년농업인들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외부기상관측센서와 환경제어시스템을 통해 온실 내부 환경을 조절하며, 이상추 농사를 짓고 있다.

한편 당진시는 업체를 비롯한 쪽파, 파리고추 등 다양한 농산물을 스마트팜 시설을 확대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 환경의 변화,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가 노동력 감소에 대응할 계획이다.

당진=최근수기자

5월 동행축제에 함께 할 300개사 선정

대전·세종지역 타향골 따뚜탕 등 16개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성복영)은 올해 첫 동행축제인 '5월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 300개사를 선정 완료했다.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공개모집(200개사)과 추천선발(100개사) 트랙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모집했으며, 총 1139개사(공모 956개사, 추천 183개사)가 신청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추천선발 방식을 도입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기업과 현장접점이 많은 기관은 물론, 한국여성경제인협회·벤처기업협회·민간유통사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참여기업 추천을 받았다.

또한, 공개모집의 경우 지난해 5월 동행축제와 비교해 경쟁률이 1.8배 가량 높

이었는데, 이는 동행축제의 인지도가 향상된 결과로 보인다.

이어진 MD 등 민간 전문가들의 시장·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 적격성 평가를 통해 우수한 제품을 가진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대전·세종지역은 백년가게 제품인 '타향골 따뚜탕'과, 티몬에서 추천한 '마녀떡볶이' 등 식품류부터 지역(세종)원료를 활용한 '도이슬 핸드워시'와 같은 화장품류 등 다양한 제품군들을 포함한 16개사가 선정됐다.

선정 기업에는 대형플랫폼·유통채널을 통한 특별기획전 등 온라인 판촉전과 라이브커머스, 지역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판로 지원과 온·오프라인 매출을 활용한 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송병배기자

이완섭 서산시장 상공인과 대화·애로사항 청취

서산상공회의소, 이완섭 서산시장 초청해 생생한 소통의 장 마련



충남 서산시는 16일 서산상공회의소가 이완섭 서산시장을 초청해 '상공인과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베니키아 호텔에서 서산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과 관내 상공인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과 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시장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관내 기

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으며, 기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했다.

한 상공인의 "상공업에 있어 물류 인프라 구축은 큰 관심사 중 하나인데, 이와 관련해 서산공항의 착공과 준공 등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이 시장은 "2026년에 착공,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공항

관련 산업이 유지될 경우, 인근 시군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산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해 서산시는 "시와 충청남도가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대산임해지역의 고도화 및 대산을 북쪽으로 내 173만 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토교통부에 지정 건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제안서를 이번 달까지 완성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성연면 인더스밸리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설치, 육쪽마늘에 대한 시 차원의 홍보와 지원, 외국인 근로자 유치 등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국제 경제 불안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공인 분들이 지역 경제를 이끄는 대들보라고 생각한다."

그리면서 "활발한 물류를 위한 서산공항을 비롯한 사물팔달의 교통망을 제공하고 산업 확장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산=김정환기자

동대전농협 NH농협손해보험 위더스 사무소 수상 영예



동대전농협(조합장 임영호)이 지난 16일 본점에서 개최된 NH농협손해보험 '위더스(With-U) 사무소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임영호 조합장을 비롯한 동대전농협 임직원과 장경민 NH농

협손해보험 부사장, 김영훈 농협중앙회 대전본부장, 민병태 NH농협손해보험 대전총국장 등이 참석했다.

『위더스(With-U) 사무소 시상식』은 보험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거점 농·축협 사무소를 대상으로 농협손해보험이 매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장경민 부사장은 이날 축사에서 "동대전농협은 대전의 중심에서 조합원을 포함한 고객들에게 보험사업을 포함한 신용사업 추진을 통해 대전지역 발전에 공헌해왔다"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보험사업 추진을 위해 농협손해보험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영호 조합장은 "오늘 위더스 사무소 수상을 보험사업 확대 및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조합경영 내실화로 조합원 및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수상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손해보험과 상생·협력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송병배기자

영농부산물 태우면 NO! · 파쇄 YES!

'청양군 찾아가는 마을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상반기 활동 성료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는 '찾아가는 마을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이 지난 3월 5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뜨거운 호응 속에 지난 4월 12일 상반기 활동을 종료했다.

"찾아가는 마을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은 청양군 4-H연합회 8명으로 구성되어 80개소 22.1ha 농경지의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봄철 본격적인 영농을 시작하기 전 신속한 처리를 위해 농가 방문 즉시 파쇄와 영농부산물 수거 후 파쇄 등 현지 사정에 따라 유연한 대처로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고령농업인 등의 수거처리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소각을 예방해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수거·파쇄해 미세먼지 저감, 산발예방, 병해충 관리에 그 효과가 있다.

파쇄대상 작물은 과수(사과, 배, 포도 등), 참깨 들깨 고춧대 등이며, 영농부산물 파쇄 지역 우선순위는 ①신림면접지(100m 이내), ②고령중, 취약중 ③이외의 농경지 순으로 추진했다.

또한, 파쇄한 영농부산물의 퇴비화를 통해 농지에 재투입 함으로써 순환농업을 실천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다.

특히, 구기자 잔가지를 염소사육 농가와 연계해 사료용으로 제공해 노동력 및 사료비 절감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탄저병, 역병 등에 감염된 고춧대 등의 부산물은 병원체 확산을 막기 위해 퇴비화하지 말아야 한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하반기(10월)에도 각 읍면을 통해 수요조사하고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농업인들이 미세먼지 저감 및 산발예방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청양=정성범기자



조폐공사 화폐박물관

제5회 국제 '장다비전' 열려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www.komsco.com)는 장에인의 날을 맞아 이달 28일까지 화폐박물관 특별전시실(1층)에서 한국장애인연맹대전DPI(회장 신석훈)의 제5회 국제 '장다비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한국장애인연맹대전 DPI가 2021년부터 진행해 왔으며, 장애인, 다문화 가정, 비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다.

각각의 앞 글자를 따서 '장다비전'으로 작업한 것으로,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시회를 의미한다.

이번 전시는 아마추어부터 전문가까지 30명이 참여했다.

'이름다운 동행', '도시이야기', '소소한 일상' 등 회화, 공예, 사진작품 40여 점이 다양하게 전시된다.

DPI(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 실현을 목표로 1985년 설립된 단체이며, 캐나다 오타와에 본부가 있다.

대전DPI는 2017년 설립돼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정기 초청강좌 개최와 사회공헌 활동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성창훈 시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전 DPI의 의미 있는 전시를 개최하게 돼 뜻깊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문화 가정의 한마음으로 꽃피운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전시회장을 찾은 모두가 따뜻한 공감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폐공사는 특별전시실을 국민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지역 작가들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무료 대관으로 운영해 연간 20여 건의 전시를 지원, 홍보하고 있다. 올해에도 서양화작품展, 동호회 사진展 등을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병배기자

동정

기념식



박경규 아산시장은 18일 오전 7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방문 축제 홍보 캠페인', 오후 4시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관에서 열리는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식', 오후 6시 영인산에서 열리는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영인산 봉화만세운동 기념식'에 참석.

당진행복아카데미



오성환 당진시장은 18일 오전 10시, 우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선 8기 3년 차 읍·면·동 순방'을 주재, 오후 7시, 청내 1층 대강당에서 '제177회 당진행복아카데미'에 참석.

공감 콘서트



가세로 태안군수는 18일 오후 7시 30분 태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태안 공감 콘서트'에 참석.

개회식



김돈곤 청양군수는 18일 오후 2시 군민체육관에서 열리는 2024 전국 종별 복싱 선수권 대회 개회식에 참석.

'상습 침수' 신덕지구 배수개선 공사 마무리

태안군, 우수지 2.5ha · 배수로 1km 설치 · 저지대 8ha 매립 · 농경지 59.2ha 혜택

태안군이 상습 침수피해 지역인 소원면 신덕지구 배수개선 사업을 마침내 마무리했다.

군은 지난 16일 소원면 영전리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해 국회의원 및 군의원, 관계기관장, 지역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덕지구 배수개선 사업 준공식'을 열고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했다.

2022년 착공해 2년 만에 준공했으며 총 사업비 43억 6천만 원(국비)이 소요됐다.

▲우수지 1개소(2.5ha) 설치 ▲배수로 4조(1km) 설치 ▲저지대 8ha 매립 등이 주요 내용으로, 총 59.2ha 면적의 농경지가 이번 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덕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신덕지구 내 농경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신덕지구는 해안 저지대에 위치해 있어 만조시 간 집중호우시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군은 농업인 등 주민들의 고통 해소를 위해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돌입했으며,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전역 국비 사업인 배수개선 사업 대상지에 신덕지구가 선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후 2020년 6월 세부설계 시행에 이어 2021년 9월 농림축산식품



부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2022년 4월 주민들의 기대 속에 착공에 돌입해 이날 뜻깊은 결실을 맺었다.

이번 사업으로 신덕지구 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지 이용률 증대와 영농환경 개선 및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되며, 군은 하반기 사업지 내 우수지에 안전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준공식에 참석한 가세로 군수는 "이번 신덕지구 배수개선 사업의 완성이 있기까지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농촌지역의 발전과 농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현기자

당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업무협약 체결

민관협력망을 통한 정책 연계 협력 · 지원체계 구축



당진시는 지난 16일, 해나루 홀에서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원을 위해 관계기관 · 단체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 연계 협력 및 정보공유 ▲지역자원 활용 및 협력을 통한 경계선지능인 수요 발굴 · 지원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운영 및 관련 사업 등에 협력하고,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기로 약속했다.

참여 기관 및 단체는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 당진시어린이집연합회, 당진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당진남부사회복지관, 당진북부사회복지관, 송악사회복지관, 송산

사회복지관,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다.

당진시는 그동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평생학습 정책 포럼과 경계선지능인 실태 및 평생교육 요구조사 용역을 시행했으며, 지역 내 통합지원망 구축을 위한 협력 회의를 진행해 왔다.

당진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계선지능인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에 대한 연구나 지원정책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지역 내 민관협력망을 구축해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자원 봉사단 출발



아산시는 16일,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자원봉사단인 제2기 '여해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여해서포터즈'는 이순신 장군의 자(字)인 '여해'를 따서 명명되었으며, 발대식에 참석한 300여 명의 열정적인 '여해서포터즈'가 축제 기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준비를 마쳤다.

이날 발대식은 선서문 낭독, 축

제 소개, 자원봉사자 직무교육 순으로 진행이 됐다.

이 자리에서 제2기 '여해서포터즈' 대표 2인(대한적십자사충남지사아산봉사관 허준옥, 유원대학교 시소소프트웨어학과 김영현)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은 선서문을 통해 "제2기 '여해서포터즈' 자원봉사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성웅 이순신축제'를 맞아 1,057명으로 구성된 제2기 '여해서포터즈'는 축제 기간에 안내홍보 및 미아 보호, 통역(영어, 중국어, 일본어), 체험부스 운영, 환경정화, 무대지원, 장애인 관람객 안내, 드론 촬영 등 행사 전반을 지원한다.

또한 '백의중군길걷기대회', '백

의중군마라톤대회', '전국노젓기대회', '공도대회' 등 축제 현장 곳곳에서 전문분야별로 나누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박경규 시장은 "작년보다 더 많은 자원봉사자여러분이 모여 주셨다. '성웅 이순신축제'가 다채롭고 풍요로워진 만큼 올해 더 조직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자원봉사 장소와 분야별로 봉사단장을 지정해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5일 동안의 축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해서포터즈' 여러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는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이순신종합운동장, 현충사, 온양온천역, 곡교전, 온양민속박물관에서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아산=리량주기자

여름철 대비 주민 합동 수해복구현장 점검 · 주민설명회 열려

김돈곤 군수, 지천 수해복구 추진현황점검 · 우기 전 마무리 지시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11일, 청남면 지천 제방복구사업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김군수는 "올 여름철을 대비 주민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사 진행 과정과 배수

공사 진행사항 설명과 우기 전 안전관리대책을 확인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인양배수장 점검에서는 펌프 9개소 교체 및 재진기 운영상황을 점검하며, 긴급 상황에 대비한 상황관리 철칙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23년 수해피해지역(청남, 장평, 목면) 주민 등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재해대비 대응현황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농어촌공사의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14건 415억원)과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3건, 400억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주민 의견을 접수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우리/동/네



'당진형 우리 동네 초등돌봄' 실시

지역 연계 돌봄으로 다양한 지역특화 돌봄서비스 제공

당진시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존 6개 돌봄 사업 외에 신규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한 '당진형 우리 동네 초등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지역연계 돌봄처 7개소를 지정해 총 130명의 아이에게 추가로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당진시는 관내 초등학생 680여 명의 돌봄을 책임지면서 돌봄 공백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4년 당진형 우리 동네 초등돌봄' 사업은 지역 내 유휴공간에서 마을 교사들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아이들에게 돌봄과 지역특화 교육을 통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지역연계 통합돌봄서비스이다.

학생 모집은 돌봄처 주변 학교를 대상으로 연계해 모집했으며,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이고 학기 중은 물론, 방학 중에도 운영한다. (단, 방학 중 운영시간은 돌봄처 별로 다름)

'우리 동네 초등돌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평생학습통합플랫폼 배움 나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대한독립만세' 함성 재현

'아트밸리아산영인산 봉화만세운동 기념식' 열려

아산시가 대표 명산 영인산에서 105년 전에 벌어졌던 만세운동을 시정 최초로 재현, 그날의 감동이 되살아날 전망이다.

시는 오는 18일 영인면에 있는 영인산 연합만세운동의 시원과 영광의 탑에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영인산 봉화만세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919년 4월 2일, 영인산 정상에서 영인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대한 독립을 향한 열망으로 깃발을 들고 전개한 '봉화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실제 영인산 '봉화만세운동'이 저지러 8시쯤 전개된 점을 고려해, 재현행사를 야간시간대에 진행한다.

기념식은 영인면 주요 기관 · 단체장을 비롯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병규 영인면 주민자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축사, 추모 공연 및 독립선언서 낭독 등이 진행된다.

이어 봉화점화 및 만세 행진을 통해 당시를 재현하고, 애국선열들에게 바치는 추모헌화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성인숙 영인면장은 "애국선열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선 8기 박경규 시장의 보훈 시정철학과 맞물려, 영인산 '봉화만세운동'을 최초로 재현하게 됐다"며 "화제사고, 응급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와 영인면은 야간에 진행되는 이날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대원 30여 명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조심하세요! 청양군보건의료원, 주의 당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조심하세요!

청양군보건의료원(원장 김상경)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활동이 빈번한 봄철을 맞이하여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봄철은 진드기 활동이 왕성해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국내에서 많이 서식하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쩍손데기에 의해 물려서 감염되는 열성질환이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첫 환자 발생 이후 2023년까지 1,895명의 환자발생이 보고되었고, 그중 355명이 사망 18.7%의 치명률을 보였다.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리면 5~14일 이내 고열, 오심, 피로감, 식욕저하, 구토, 설사 등 소화기증상이 주로 나타나며 근육통이나 두통을 동반하기도 한다.

김상경 보건의료원장 SFTS를 예방하려면 캠핑, 등산, 농작업 등 야외활동시 긴 소매옷, 긴 바지를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서는 돛자리 위에 앉고 야외활동 후에는 의복을 세척하고 몸을 깨끗이 씻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몸에 붉은 참진드기를 발견할 경우 손으로 떼지 말고 꾀바로 병원을 방문해 안전하게 제거해 2차 감염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우리/동네

중국 낙양시 제41회 낙양 모란축제 방문

박정현 부여군수, 5년 만에 방문...백제문화제와 모란축제·양 대표 도시축제 성공 기원

부여군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하남성 서의현 낙양시장의 초청을 받아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박정현 부여군수를 중심으로 한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여군과 낙양시는 1996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백제문화제와 모란축제라는 양 대표 도시축제에 꾸준히 참석하며 교류를 돈독히 해왔다.

이번 방문은 중국 국가축제 중 하나인 제41회 낙양 모란축제에 공식적으로 부여군 일행을 초대한 것으로, 박정현 군수가 직접 낙양을 방문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5년 만이다. 오랜만의 방문이기에 대표단 안



에는 부여군의외장성용 의장과 윤선예 의원이 포함되어 낙양시 인민대표대회와의 교류에도 힘을 보탤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서의현 낙양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인류 문화는

한 나라, 한 사람의 문화가 아니다. 문화는 수천년의 역사 속에서 스스로 변화하거나 지역간의 교류로 섞여왔다. 사람의 발길과 생각을 따라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창조 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라며 "문화의 연결은 문화의 세계화로 가는 항로이기에 올해 백제문화제에 서의현 낙양시장 및 이북군 낙양시 인민대표대회 주임을 초대할테니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달라."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15일부터 19일까지 4박5일 기간 동안 낙양시 뿐만 아니라 우호도시인 연태시도 방문하여 양 도시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동정

새마을의 날 기념식



김기웅 서천군수는 18일 오전 9시 군청 주민소통실4에서 열리는 서천특화시장 화제 북구대응 점검회의에 참석, 오전 10시 서천문예의전당 대강당에서 열리는 대한노인회 서천군지회 노인지도자 교육에 참석, 오전 11시 서천문예의전당 소강당에서 열리는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참석.



부여군청 카누팀 소속 국가대표 카누 스피리트 아시아선수권대회 참가

부여군청 카누팀(감독 박규) 소속 국가대표 이하린, 이한솔, 최란 선수가 일본 도쿄에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2024년 카누 스피리트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올해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파리하계올림픽 출전이 걸려있는 중요한 대회로, 국가대표 선수들은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기 위해 국내외의 전지훈련을 통해 경기력 및 체력 향상을 위해 애써왔다.

부여군청 카누팀 박규 감독은 "작년 국제대회 메달 획득 이후 명실상부 카누 명문팀이라는 명예를 이어가기 위해 힘든 훈련과 고된 준비를 하였다."면서 "향상된 경기력을 겸비한 우리 선수들이 올해 국내 및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경기성적을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여군청은 1990년부터 카누 종목을 직장체육팀으로 육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부여군청 카누팀은 2023년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전국 최고 경기력을 자랑하는 카누 선수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하반기 카누종합훈련센터를 착공할 예정이다.

서천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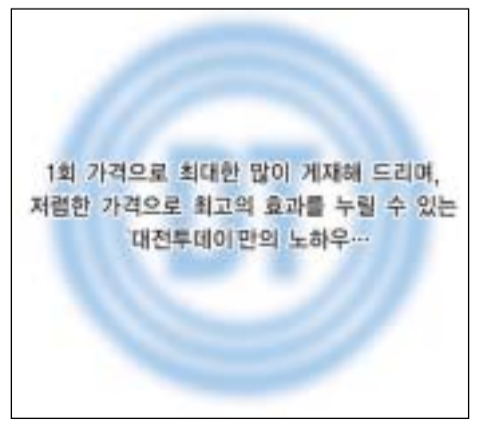
서천군이 17일 봄의마루 광장에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희망 서천 어울림 축제를 개최했다.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행사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1부 기념식은 모범장애인인 장애인복지발전 유공자, 장애인식개선 기여자 등 20명에 대한 표창과 발달장애인의 장애인 인권현장 낭독으로 이어졌으며, 2부 행사는 축하공연과 읍면별 참가자방으로 꾸며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을 다졌다.

행사를 주관한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천군지회 박창석 지회장은 "이번 행사가 좀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자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기웅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계룡시 '제3회 도시농업 축제' 열려

도·농상생 실현·농촌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 마련

계룡시(시장 이용우)는 도심 속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농업체험을 할 수 있는 '제3회 계룡시 도시농업 축제'를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새터산 근린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농업 축제는 '도시농업! 꽃을 피우다'라는 슬로건으로 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을 통한 힐링라이프를 제공하고 나눔과 소통을 바탕으로 도·농상생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첫째 날에는 재활용품을 활용한 소정원 만들기 경진대회가 펼쳐진다. 사전 신청한 20팀이 참가하고, 우수작품 3점은 개막식에 시상하며, 입상자에게는 충청남도생활원에 경진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경진대회에 제출된 모든 작품은 27일 시민체험행시장에 전시하여 생활원에 저변확대 및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쓰일 예정이다.

둘째 날 시민체험행사는 오전 10시 개막식과 함께 반려식물 및 공기정화식물 전시, 도시농업 체험부스 운영, 도시농업 OX 퀴즈 토종종자 및 봄맞이 나눔 등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행사가 열린다.

시민체험행사에서는 텃밭상자 및 잔디인형 만들기 등 식물을 통한 힐링과 농산물 풍류초콜릿, 인절미와 생딸기청 만들기 등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이색체험이 함께 열린다.

아울러 반려식물 홍보관 및 텃밭버거 만들기, 탄소중립 체험 등 지속가능한 농업과 생활속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다양한 22종의 체험활동이 함께 열려 참석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식물재배 경험이 부족한 시민을 위한 원예교실을 열어 식물재배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반려식물이 주는 공기정화와 정서적 안정감에 대한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체험은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선착순 참여 가능하며, 체험비는 무료이다.

이용우 시장은 "싱그러운 봄, 새터산 일원에서 열리는 제3회 계룡시 도시농업축제를 통해 도시농업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계룡=김성구기자



시군평가대응 추진계획 보고회 열려

서천군, 2025년(24년 실적) 우수성과 달성 전략 회의

서천군이 지난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24년 실적)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평가 대응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군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합동평가와 연계되며, 평가지표들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중요한 업무들로 구성됐다.

이번 보고회에는 노태현 부군수 주재로 관련 부서장이 참석하여 총 94개 지표에 대한 부서별 추진목표 및 계획, 우수사례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노태현 부군수 "부서 간의 협력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여 최종결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준비"를 강조하며, "지표에 대한 노력과 우수성과 달성 직원들에게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올해 시군평가 우수기관 달성을 위해 시군평가 통합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표담당자 역량교육, 전문가 컨설팅, 추진실적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시군평가 대응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서천=김태성기자

서천군 임시특화시장 '10~30%' 상품권 할인 행사 진행

오는 25일부터 국산 수산물 구입 시 최대 30% 온누리 상품권 환급

서천군이 오는 25일 임시특화시장 개장과 동시에 특화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권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군은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월 8일까지 당일 국산 수산물 구매 시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구매금액이 3만 4천원 이상 6만 7천원 미만일 경우 1만원 환급 ▲구매금액이 6만 7천원 이상일

경우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고객들은 행사 참여 접점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한 후 접점에서 전용앱을 통해 판매 정보를 등록한 다음 온누리 환급행사를 방문해 구매 영수증 및 등록 정보 확인을 받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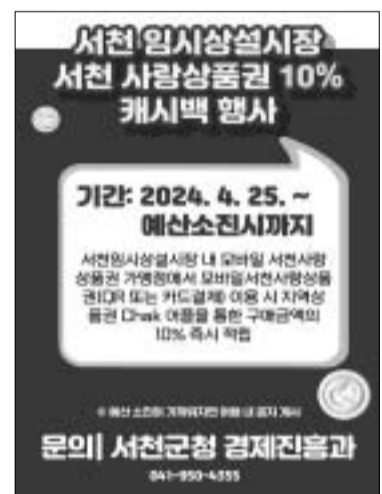
또한, 군은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서천사랑상품권 10% 캐시백 행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서천임시상설시장 내 서천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모바일 서천사랑상품권(QR 및 카드 결제)으로 결제하면 즉시 10% 캐시백을 지역 상품권Chak 어플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시까지 월별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적립 받을 수 있으며, 군은 예산소진일이 도래하면 지역 상품권Chak 어플 내에 공지할 방침이다.

김기웅 군수는 "적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인들과 소비자들 간의 상생에 도모하여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로서 소비자들



이 여러 혜택을 동시에 누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많은 공통직위 우수로 선정했다.

시는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류대상자에게 근무성적평등 가산점 부여, 성과급 우대, 계통시 복귀시 희망보직 반영, 장기교육 선택 우대, 특별승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보조비와 교류수당 역시 지원할 방침이다.

이용우 시장은 "넓고 다양한 시각을 지닌 공직자 양성을 통해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교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계룡시 전국 자치단체 대상 2024년도 계획인사교류 추진

자치단체 간 상호 협조체제 강화·공무원 역량 향상 기대

계룡시(시장 이용우)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계획인사교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획인사교류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전 교류직위를 지정하고 상호 파견 또는 전출·전입 형태로 운영하는 인사교류 형태를 말한다.

계획인사교류는 보통 광역자치

단체와 해당 관할구역 내 기초자치단체 간 운영이 일반적이지만, 계룡시는 계획인사교류 대상 범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대전시, 세종시 등 이웃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인사교류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교류 희망 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7월 정기인사에 반영·시행할 계획이다.

교류가능 직급은 5급부터 7급까지 공무원으로 동일 직급간 상호 1대1 교류가 원칙이며, 교류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각종 비위사건에 연루되어 있거나 최근 휴직 복직자, 정년퇴직 예정자 등은 교류가 제한된다.

교류직위는 총 13개 직위를 사전 지정하였으며, 보다 활발한 인사교류를 위해 교류대상자 인력규모가

논산시 농경지 재해예방을 위한 "논 도랑 치는 날" 실시

민·관 모두가 함께하는 유기철 대비 우리마을지킴 캠페인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농경지 침수 예방사업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용배수로 퇴적토, 잡초, 쓰레기로 인한 배수로 문제점을 인식하

고 함께 해소코자 "논 도랑 치는 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지난 13일 가야곡, 양촌

적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후 시는 각 마을의 폭우 위험 구역의 배수로를 점검·보수하고 이후 발생할지 모를 물난리에 대비해 관계시설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논 도랑 치는 날"의 안정적인 정착은 농경지 구석구석 재해예방은 물론 영농환경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논산시는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배수시설 확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각 배수소가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근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논도랑 치는 날의 시행으로 배수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모두가 합심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논산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논산시는 작년 7월 487mm의 기록적 폭우가 내려, 긴급복구와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음에도 1만 177건의 물

논산=김태성기자

부여군 청년농업인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 교육 지원

농업 경쟁력 강화 위한 3톤 미만 굴삭기·지게차 등 3과정

부여군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전문교육 위탁업체인 논산중기운전학원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4월 8일에서 4월 18일까지 기간 중 4회차에 걸쳐 운영하며, 청년농업인 16명을 대상으로 소형건설

기계 면허취득 교육 3과정(3톤 미만 굴삭기, 지게차, 스카프 로더)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들의 소형 건설기계 자격 취득 교육으로 기계 사용법 숙지와 젊은 농업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부여군농업기술센터 신동진 소장은 "최근 농업 분야에서 소형건설기계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청년농업인이 지역 농업·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동정

지역치안협의회 회의



최원철 공주시장은 18일 오전 11시 시청 대백제실에서 열리는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회의에 참석.

목요간부회의 주제



구기선 보령부시장은 18일 오전 8시 20분 목요간부회의 주제.

고북면 남정1리 경로당 개소식



이완섭 서산시장은 18일 오전 11시 고북면 남정리 일원에서 열리는 고북면 남정1리 경로당 개소식 참석, 오후 1시 30분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서산시농업인대학 입학식 참석, 오후 4시 보령 한화리조트에서 열리는 서산시 자원봉사단체 대표 워크숍 참석.

통합데이터분석센터 벤치마킹



박빈 금산군수는 18일 오후 2시 금산군청에서 열리는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 벤치마킹 참석.

제26회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충남 서산시는 대한노인회 서산지회가 16일 '제26회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다.

갑산동 산3-29번지 일원에 마련된 게이트볼장에서 열린 대회는 각 마을 경로당 회장, 29개 게이트볼팀 선수,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우종재 지회장은 대회사에서 "건강한 스포츠에 꾸준히 참여해 심신을 단련하는 선수 여러분의 열정을 존경한다"며 "선의의 경쟁으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인정받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회원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선수들은 경기장 내에서 열띤 응원과 함께 경기를 치렀으며, 경기장 밖에서는 서산의료원, 서산시보건소, 서산시자원봉사센터, 서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산의료원, 서산시보건소는 비상시에 대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서산시자원봉사센터는 수지침, 이·미용 서비스, 네일아트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회 분위기를 한층 북돋웠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마스크와 팝콘을 나누어 주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응원했다.

열띤 각축전 결과 우승은 해미A 게이트볼팀, 준우승은 고북 용암A 게이트볼팀, 공동 3위는 부석게이트볼팀, 지곡게이트볼팀이 차지하며 대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어르신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할 시책 중 하나다"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88억 원을 들여 대회가 진행된 게이트볼장을 마련했으며,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만세보령쌀 삼광미골드,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대한민국 대표 국민 쌀 입지 다져”



보령의 대표 특산물 삼광미골드, 5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동아닷컴, iMBC, 환경닷컴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구영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이근욱 NH농협보령시지부장, 김기형 법인의장조항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7일 서울신라호텔 디너 스테이블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상은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인기와 사랑을 받은 최고의 브랜드를 발굴해 글로벌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2006년부터 이어온 국내 최고 권위의 브랜드상이다.

소비자 설문조사와 전문가들의 분석 및 인증 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선정위원회에서 만세보령 쌀광미골드를 쌀 부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만세보령쌀 삼광미골드는 미네랄의 보고인 해안 간척지와 사계절 풍부한 일조량 등 재배환경을 바탕으로 재배 첫 단계인 벼씨 파종에서부터 공동육묘장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병해충에 강한 우수 묘묘로 생산된다.

재배 필지는 건강한 토양관리와 벼 생장에 필요한 최적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등 전 과정을 고품질 쌀 생산 표준 매뉴얼에 따라 관리하고, 농산물우수관리시설(GAP시설)로 지정된 만세보령농협통합RPC의 가공현대화시설에서는 첨단자동로봇시스템에 의해 계량, 포장, 적재 등 생산의 최종 공정이 이루어진다.

특히 포장 직진 단계에서 추가로 수분, 단백질, 아미로소 함량 및 전립비율 등 자체 품질기준에 따른 품질을 평가한 후 일정 기준에 부합한 정곡이 소비자들에게 유통된다.

김구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삼광미골드가 5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국민 쌀로 입지를 굳건히 다졌다”라며 “앞으로도 삼광미골드의 명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선 기자

금산군,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지방세 민원 신청하세요”

자동차세 연납차량 환급 접수함 취득세 전용팩스 운영

금산군은 올해 주민의 간편한 지방세 비대면 업무를 돕기 위한 간편 민원 창구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진하는 간편 민원 창구는 연납차량 환급 접수함, 취득세 전용팩스다.

군청 민원실에 설치된 연납차량

환급 접수함은 차량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 말소 시 사전에 납부한 자동차세를 빠르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환급 접수함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함에 넣으면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가 수시로 확인해 신청한 자동차세에 대해 신속하게 환

급해 준다.

또, 군청에 방문이 어렵거나 전자신고에 익숙한 민원인을 위해 군청 민원실 취·등록세 신고창구에 전용 팩스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전용팩스(☎041-754-1657)로 관련 서류를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담당자 검토 후 즉시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원본 서류

는 추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간편 창구 운영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민원인과 소통하는 세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이금희 아나운서 초청 ‘제83회 서산아카데미’ 개최

오는 25일 서산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서 열려

충남 서산시가 이금희 아나운서를 초청해 오는 25일 오후 7시 서산시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제83회 서산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서산아카데미는 ‘더불어 살며, 서로 헤아리며’를 주제로 이금희 씨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강연 등으로 3만여 명과 소통한 경험담을 풀어낸다.

또한 국민 아나운서의 시각과 경험으로 행복, 인간관계, 삶 등을 시민과 함께 조명할 예정이다.

이금희 아나운서는 1989년 KBS 16기 공채로 입사, KBS1 ‘아침마당’을 18년 동안 진행하면서 국민 아나운서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프리랜서 방송인으로서 KBS2 ‘한 번쯤 멈출 수밖에’, KBS Cool FM ‘사랑하기 좋은날 이금희입니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우리, 편하게 말해요’, ‘나는 뛰고 싶지 않다’ 등의 책을 저술하며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서산아카데미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25일 오후 6시부터 문화회관 1층에서 입장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식전 공연으로 ‘퀵위드’의 바이올린, 플루트, 첼로 등 5중주 앙상블이 준비돼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직업으로서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가진 이금희 아나운서를 초청한 이번 강연이 인간관계에 고민 중인 현대인에게 대화와 소통의 방법을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공주시, 채소소물리에 자격시험 연계 교육 진행

건강한 먹거리 전문가육성으로 올바른 식문화 정착기대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도시민 대상 원예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생 20명을 대상으로 채소소물리에 자격시험 연계 교육을 진행한 다.

교육은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화요일과 목요일 총 4회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전시관 체험학습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채소소물리에 자격 2급 시험과 연계되는 교육으로 자격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며, 자격시험 희망자는 추후 인내에 따라 개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 식문화를 이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채소과일에 대한 감각, 특징을 올바르게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0명의 채소소물리에를 양성한 시는 농업인과 도시민의 소비 공간대를 형성해 바르고 건강한 공주시 식문화가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www.gongju.go.kr/farming/)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역광개발팀(041-840-3518)으로 문의하면 된다.



다.

공주=정성범기자

우리/동네

현장중심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공주시, 시민 만족의 친절 마인드 향상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시민 만족의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해 민원 부서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한다.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분청 민원토지과와 허가건축과 민원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친절교육 참여율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3개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부서별 전화·방문민원 응대 태도 관찰, 사무실 환경 상태 점검, 민원인 동선 관찰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다.

이후 1:1 직원면담을 통한 개인별 코칭, 친절 마인드 및 민원 응대 방법 교육 컨설팅, 우수사례와 개선 사항 등을 조인한다.

오태훈 민원토지과장은 “민원인을 대하는 기본이자 최고는 ‘친절’이라 생각한다”며 “민원공무원의 친절 마인드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시민이 원하는 민원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공주=정성범기자

태국 완 라이 방셴페스티벌서

김동일 시장 보령머드축제 알려

송크란·태국 방방곡곡 지역축제 살펴봐

보령시는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태국 방셴에서 펼쳐지는 완 라이 방셴페스티벌에 참석해 보령머드축제 홍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김동일 시장을 비롯한 공식방문단 및 현장 운영단 13명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축제 기간인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홍보부스 등을 운영하여 보령머드축제를 집중 홍보한다.

이날 김동일 시장은 솜차이 쉰푸너이 태국관광청 동부지구 국장과 나룻차이 쿤쁠름 쉰 속 방셴시장을 만나 환영오찬을 가졌으며, 개막식에서는 방셴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인사말씀, 선물교환, 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다시 한번 태국관광청과의 우호를 다지고, 보령머드축제와의 연계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앞으로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에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머드축제는 태국 현지에서도 잘 알려진 만큼 세계적인 축제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송크란 축제와 완 라이 방셴페스티벌과 같은 국제행사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너지는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 라이 방셴페스티벌은 매년 4월 중에 태국 동부에 위치한 방셴 해변에서 펼쳐지며, 송크란 축제(태국 정부의 공식적인 기간 4월 13일~15일)에 이어 지역의 특색에 맞춰 다양한 연계 행사가 진행된다.

김대선 기자

공직자 착한가격업소이용의 날 운영

금산군, 매달 둘째·셋째 주 수요일 이용

금산군은 불가인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달 둘째, 셋째 주 수요일 공직자 착한가격업소이용의 날을 운영한다.

이날 점심시간 군청 구내식당을 열지 않고 직원들이 착한가격업소 등 외부 식당을 이용할 예정이다. 관내 착한가격업소는 백설식당, 손맛추어탕, 만두마당, 인삼골장터순대, 국수골, 삼리국수 등 6개소다.

군은 매년 외식업을 비롯해 기타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해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업소는 인증 표창을 제공하고 인센티브용 쓰레기봉투 지급, 위생관리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는 군민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불가인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이들 업체 이용에 앞장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한밭대, 필리핀 과학기술부·이사벨라주립대 연구소기업협회 글로벌 산학협력 강화... 관계자 협력 방안 논의

국립한밭대학교(총장 오용준)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필리핀 이사벨라주 카우아얀(Cauayan)시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제 스마트 시티 박람회 및 네트워킹(SCENE 2024)'에 융합경영학과 최종민 교수와 국립한밭대 자회사인 바이오이티㈜ 정환수 대표(연구소기업협회 부회장), 연구소기업협회 한정호 사무국장(국립한밭대 창업경영대학원 졸업)이 연설자로 초청받아 강연과 함께 세부협력을 모색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국립한밭대 최종민 교수는 "사이언스파크 관리와 산학협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죽음의 계곡'을 건너기 위한 방법론 및 INC와 TPM 연계도 모델을 통한 기업가적 대학, 정부 차원의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사벨라주립대 등 여러 대학 및 도시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STP Science & Technology Park 교육에 참석한 바 있는 현지 대학교수, 공무원, 기업인 등과 만나 교류하기도 했다.

또, 제118호 연구소기업이고, 국립한밭대



기술지구 자회사인 바이오이티㈜ 정환수 대표는 지난 3여 년 동안 동남아시아에서 ESG 관련 정책과 탄소절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 과학기술부와 이사벨라주와 협력해 온 "기후변화에 따른 필리핀 농업형 비즈니스 환경과 연구소기업의 대응 기술 사례"를 현실감 있게 소개해 UNIDO(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를 포함해 다양한 국제기구 관계자와 필리핀 전국에서 모인 각 지역 정책

입안자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필리핀 과학기술부(DOST) 솔리팀(Renato U. Solidum Jr.) 장관은 최종민 교수, 정환수 대표, 한정호 사무국장이 발표한 대덕 이노폴리스와 연구소기업의 발전사, 다양한 기업지원과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기업가적 대학, 창업교육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형 기술 사례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사)연구소기업협회 회장 김의중은 필리핀 과학기술

부 장관과 필리핀 이사벨라주립대 총장이 직접 서명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김의중 연구소기업협회장은 연구소기업의 해외거점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과 기획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 스마트 시티 박람회 및 네트워킹(SCENE)은 필리핀 이사벨라주 카우아얀시의 'UN 농업형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선정을 기념해 필리핀 과학기술부와 이사벨라주립대가 협력해 2023년부터 관련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2회째를 맞은 SCENE 2024 콘퍼런스 주제는 '시너지 촉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스마트 시티 되기(Synergy: Unleashed: Becoming Smart Cities Through Strategic Partnerships)'로 필리핀 과학기술부와 필리핀 지역별 대표, 국제기구 관계자, 글로벌 초청 연설자, 학계, 기업대표 등 1,000여 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김정환기자



'공주알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소비자들이 직접 투표해 선정, 공주시 4번째 대상 수상

충남 공주시의 대표 특산물인 '공주알밤'이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공주알밤'이 임산물 분야에서 영예 '대상'을 수상했다.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대한민국 지역 문화 산업 각 지역의 특산물에 대해 브랜드의 인지도와 차별화, 신뢰도, 품질 만족도 등 각 평가 항목에 근거해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하는 상이다.

'공주알밤'은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각 지역 특산물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고의 영예인 대상에 선정됐다.

이로써 공주알밤은 2020년과 2021년, 2023년에 이어 올해 4번째 대상을 받는 쾌거를 안았다.

공주=정성범기자



신성대, 평택해경 대상 초경량비행장치 교육 실시

신성대학교는 지난 12일, 2024년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평택해경 소속 경찰관 초청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드론)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2년 첫 번째 교육을 실시한 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전과는 달리 다양한 드론을 활용하며 각기 다른 드론의 특성을 이해하는 등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육생 수를 늘리며 양적 수준도 향상하며 양 기관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 교육을 실시했다.



2024년 흥성군 이동복지관 '행복니눔' 활동본격 시동

흥성군이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년 이동복지관'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 지난 16일 광천읍 흥성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첫 행사에는 30여 개 기관·단체와 12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큰 나눔의 장을 펼쳤다.



청양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한마당 개최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청양군지회(회장 이민우)는 지난 16일, 청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kt cs 2024년 대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업무협약 체결
kt cs(대표이사 김현수)와 대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대구의료사회)은 지난 11일 오후 대구비른의원&비른건강검진센터에서 지역사회 봉사 및 방문의료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KT&G 장학재단 '2024년도 대학 상상장학생' 모집

4월 29일까지 접수, 대학생 200명 대상 장학금전자도서관 등 지원

KT&G장학재단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대학 상상장학생'을 모집한다.

'대학 상상장학생'은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4월 29일까지 KT&G 장학재단 홈페이지(scholarship.ktngot.com)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장학생 200명에게는 1인당 300만원의 장학금과 다양한 문화체험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상상장학캠프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또, 약 1,100여 권의 도서가 수록되어 있는 KT&G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전자도서관도 이용 가능하다.

KT&G장학재단은 지원자의 신청자격과 학습계획 등을 공정하게 심사하여 오는 5월 7일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홍필 KT&G장학재단 사무국장은 "우수한 인재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매년 '상상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장학사업을 통해 역량 있는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8년 설립된 KT&G장학재단은 교육 소외계층 지원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매년 문화예술 분야 장학생을 지원하며 청소년 예술인 발굴에도 기여하고 있다. 재단 설립 이후 작년 말까지 누적 장학금 지원 규모는 435억원에 달하며, 장학생 수는 1만 명을 돌파했다.

이정복기자

장애인의 날 맞아 "라면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신천지지원봉사단 대전지부,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에 라면 기부

신천지지원봉사단 대전지부부장 장방식·이하 대전지부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를 방문해 400가정에 라면을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권준식 서구지회장은 "서구 장애인과 가족들의 복지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일하는 협회에 관심과 도움이 되는 손길은 언제나 감사하다"며 후원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대전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짓지 않고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웃과 함께 걷는 대전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천지지원봉사단 대전지부는 매달 노인 정을 방문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려운 지역민을 위해 빵을 기증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 20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이들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1972년 민간단체에서 개최하



던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는 국가에서 기념행사를 해왔으며, 10년 뒤에는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됐다.

김성구기자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결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지지 선언



(사)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회장 강춘식)는 17일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회의실에서 연합회장 및 임원, 7개 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을 지지 선언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대전세종지역 내 첫 번째 지지 선언으로, 강춘식 연합회장은 국민건강보험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법개설 기관 척결을 위해 조속히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 국회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 통과 촉구 ▲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극 협조 등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년간 불법개설기관에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가 3조4천억 원에 달하지만, 부당이득금 환수는 6.9%에 불과한 실정으로,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연간 2천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특사경 권한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정춘숙, 서영석, 김중민, 이종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계속 심사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이장수 본부장은 "이번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의 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선언 이후, 계속해 소비자시민단체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이산플리텍대, 반도체

디스플레이과 신설

한국폴리텍대학 이산캠퍼스(학장 김용득, 이하 이산플리텍)의 반도체디스플레이과는 2023년도 반도체학과 신설에 선정됐으며, 정부로부터 3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반도체 후공정분야로 학과 신설이 완료됐다.

전공정 실습실은 실습실 전체가 클린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Wet Station System, Metal Plating System, Spin Etching System 등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들로 실습이 가능하다. 후공정 실습실은 Chip Bonding System, Wire Bonding System, Probe Station 등 삼상전자, 세메스 등 기업에서 사용하는 후공정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고, 회로 패턴이 형성된 웨이퍼를 개별 칩단위로 분리 조립하여 최종 제품인 반도체 칩을 제품화할 수 있도록 실습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패키징테스트실습실은 반도체칩 테스트 운영 패키지, 환온 환습 챔버, Signal Generator, 반도체칩 특성검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반도체 칩에 대한 성능 신뢰성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습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이산=리량주기자

중기중앙회, 자산

운용본부장 공개 모집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기중앙회 자산운용본부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자격으로 연·기금 또는 금융기관 등에서 자산운용부서장 이상으로 재직할 경력과 자산관리 및 투자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춰야 하며, 중기중앙회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로 지원서와 경력기술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임용될 예정이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으로 임기만료 시에는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 재계약할 수 있다.

자산운용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공제기금 등 중기중앙회 공제사업에 대한 자산관리·운용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다.

이번 채용은 향후 중기중앙회에서 대체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로 자산배분전략을 수립한 후 진행되는 공모로 대체투자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송병배기자



한남대 개교68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남대(총장 이승철) 개교 68주년 기념행사가 17일 정성교선교관에서 열렸다. 기념식에서 이승철 총장은 교직원 장기근속상, 업무유공상 및 모범직업상, 연구업적우수교원상, 우수교수·우수직원·우수조교 총장특별표창 등을 수여했다.



대전교육청, 이엘치과병원 10년간 학생 장학금 2억 3800만 원 기탁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7일 이엘치과병원(병원장 이도훈)으로부터 학생 장학금 14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동구, 독서·소통·문화공간 북카페 '동네북네 용운점' 개관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대전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독서·소통·문화공간 '북카페 동네북네 용운점'을 지난 15일 개관했다.



이산시정원조성과 신정호 산책로에 '청림 꽃밭' 조성 이산시정원 조성에는 12일 '청림 아산' 이미지 확산과 청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신정호 아트밸리'에 '청림꽃밭'을 조성했다. 시 청림 정책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청림꽃밭은 정원조성과 전 직원이 참여 공모에서부터 꽃밭 조성까지 직접 참여했다.



예산군, 예산우체국과 '복지기기우편사업' 협약 체결 예산군은 16일 상황실에서 예산우체국과 '복지기기우편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이 위기정후 가구에 복지 정보가 담긴 기기 우편을 발송하면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대상자의 실거주 여부 및 생활 상태에 대한 목록표(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군으로 다시 회신하는 업무 시스템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대전·충남재향군인회, 환경정화활동(플로깅) 전개 대전·충남재향군인회(회장 박재운) 회원 60여 명은 지난 15일 보문산 산책로에서 환경정화 활동(플로깅)을 실시했다. 이날 곳은 날씨에도 회원들은 길가의 담배꽂이와 사각지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대전시민들이 즐겨 찾는 보문산 산책로를 깨끗이 정비하는 등의 정화활동을 전개했다.

우송정보대학, (사)꽃차문화진흥협회와 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꽃처럼 아름답게, 꽃차처럼 향기롭게”

우송정보대학(총장 이달영)과 '꽃처럼 아름답게, 꽃차처럼 향기롭게' (사)꽃차문화진흥협회(협회장 송희자)는 대학 및 협회 임원진,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사)꽃차문화진흥협회 본원인 머루랑다래방 회의실에서 꽃차 식음료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공동 연구와 성인학습자 입학에 위한 교류와 미래성인스쿨 양성과 관련해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 MOU는 한국 꽃차 브랜드를 세계로 보급하고 있는 (사)꽃차문화진흥협회와 함께 꽃차마이스터 클래스를 설치하고 교육하기 위한 취지로 상호지원과 유기적이며 긴밀한 협력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경제 발전 및 입학 기회 확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교육·연구, 기술 등 정보교류, 미래성인스쿨 양성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직접 학생을 가르치고 양성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사)꽃차문화진흥협회는 2012년 설립되어 꽃차 기술 장려사업

은 물론 꽃차 숙련기술·지식과 장인정신을 전수하는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꽃차 마이스터 기능인들이 소속된 기관이며, 우수한 대한민국의 꽃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꽃차마이스터 양성을 선도하는 기관이다. 또한 (사)꽃차문화진흥협회는 꽃차 성분 분석 및 꽃차의 기능성 등 꽃차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

년 꽃차 학술세미나와 꽃차 품평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우송정보대학 김수경 입학처장, (사)꽃차문화진흥협회 송희자 협회장, 머루랑다래방 박소영 농부, 마스터셰프과 정인영 교수, 파티시에과 박세니교수와 재학생 등 내빈들이 참석해 협약서 낭독, 서명 및 교환, 꽃차 특강, 소품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우송정보대학은 2024년부터 미래성인스쿨을 설치해 마스터셰프과, 파티시에과, 스마트팩토리과, 산업안전과, 철도토목안전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직접 성인학습자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정복기자



이산폴리텍, KT&G로부터 감사패 수여 받아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학장 김용복, 이하 아산폴리텍)는 "지속적인 지원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감사패를 수여한다"며 "앞으로도 KT&G는 사회 발전 노력과 함께 기업교육에도 협력하며 아산폴리텍과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산=리량주기자



공주시 중학동 새마을회,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와

새마을정신 발전 위한 업무협약

공주시 중학동 새마을회(협의회 회장 정인복, 부녀회장 오연옥)와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관장 이미경)는 최근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청소년의 봉사 실천과 새마을정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학동 새마을회와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마을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봉사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들은 먼저 5월 4일 개최 예정인 중학동 경로잔치에 행사준

비와 배식 봉사를 시작으로 ▲탄소중립 활동(꽃과 나무심기) ▲이웃사랑 실천(반찬나누기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오연옥 부녀회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을 일깨우며 건강한 사회 건설에 앞장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에 감사드립니다."며 "청소년들이 잠재력을 개발하고 발랄한 지역사회의 훌륭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고 밝혔다.

공주=정삼범기자

'태그리스 시스템 시범 서비스' 위한 업무협약

대전교통공사, 하나은행·쥬티머니와 기술적 검증과 플랫폼 고도화 모색 등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구양)와 하나은행(대전세종지역대표 합종덕), 쥬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는 '태그리스 시스템 시범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16일에 체결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빠르고 편리한 차세대 교통 결제 시스템 구축에 앞서 태그리스 시스템의 기술적 검증과 플랫폼을 고도화하기 위해 태그리스 제반 시설 제공, 시범 설치 및 시범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태그리스 시스템이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인 블루투스 및 스마트폰 센서 기술을 이용하여 게이트에 설치된 비콘에서 고유ID를 송출한다. 스마트폰이 이를 수신하여 자동으로 이용인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고 승차할 수 있다. 이는 교통약자나 양손에 힘이 있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빠르게 승차할 수 있어 개

표기에 승객이 몰려 대기하는 문제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시청역과 올해 2월 반석역에 태그리스 게이트 설치에 이어 올해 5월 초에 용문역과 유성온천역 2개역에 태그리스 게이트를 1년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시민 설문조사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전체역사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대전교통공사 연구양 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대전교통공사와 하나은행, 티머니의 역량을 더해 교통 결제시스템을 선도하고 대한민국 표준, 나아가서는 세계 표준의 태그리스 시스템을 만들어 대전도 세계 수준의 경쟁력 향상과 운영을 효율화하여 고객 만족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백석대·백석문화대 '천원의 아침밥' 운영 시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원... 질 좋은 아침식사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백석문화대학교(총장 송기신)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지원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운영한다.

생이 1천원을 부담한다. 백석대는 '덮밥' 위주의 메뉴를 준비하고 백석문화대는 '백반' 위주의 메뉴를 준비해 학생들이 만날 계획이다. 대학 관계자는 "천원의 아침밥"을 1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시작해 기말고사, 2학기 중간, 기말고사 시즌에 운영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더욱 나은 식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남서울대 스마트팜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남서울대학교(총장 윤승용)는 16일 본관제2회의실에서 벨엘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엘에스엔비(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와 스마트팜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협대전공판장 '온라인 식자재물사업 활성화 학생 간담회' 농협대전공판장(사장 박지훈)은 16일 회의실에서 "농협 온라인 식자재물(생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일·채소 중도매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대전공판장은 회원관리와 마케팅(회원유지, 행사, 홍보 등) 지원을 중도매인은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기로 협의하고 "농협 온라인 식자재물" 참여 중도매인의 신규 판로 확보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대전대, 재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 대특강'

취업 지원과 취업 인식개선 등 취업 대특강 뜨거운 열기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취창업지원팀(팀장 최정호)는 재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 대특강'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2024학년도 1학기 첫 취업 대특강에는 총 305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지난 16일에도 300여 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입사지원서 완전 정복"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취업지원팀(팀장 최정호)은 "취업역량개발원에서는 1학기 동안 ▲2024년 취업기상도 및 채용트

랜드 특강(3월 28일) ▲2024년 상반기 입사지원서 완전 정복(4월 16일) ▲면접관에게 호감을 주는 면접 대비 전략(5월 9일) ▲취업 정보를 활용한 AP(Action-Plan) 설계(6월 4일) 등 총 4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진행한다. 한편 '2024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취업대특강은 취업지원팀(팀장 최정호)에서 '대전대 재학생의 취·창업 기회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김정환기자

기고



여준 김천섭
서대전여고 배움터지킴이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대 꿈을
풀잎에 연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무지개 따라 울러갔던 오색빛 하늘
래
구름 속에 나비처럼 나르던 지난 날
동그랗게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이렇게 만들어진 “얼굴”이란 노래는 심봉석 작사, 신귀복 작곡의 노래로 1967년 아침 서울 마포구 소재 동도중학교 교사였던 두 교사는 교무회의가 길어지자 지루해진 음악교사 신귀복과 생활교사인 심봉석이 즉흥적으로 만들어 낸 노래였다고 한다.

그 후 신귀복은 KBS 라디오 PD에게 약보를 주었고 성악가들이 녹음을 하여 라디오에 방송을 타면서 “얼굴”이란 노래는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로 크게 히트를 하면서 국민이 애창하는 국민가요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우리의 마음이 담긴 얼굴은 시시각각으로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는 이정표처럼 희로애락을 쉽게 얼굴 속에서 용솨음치면서 우리의 삶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이정표이기도 하다.

얼굴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어서 쉽게 감출 수 없고, 행복과 기쁨, 희망과 용기와 같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마음의 정열에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

얼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오노레 드 발자크”의 말처럼 마음을 아름답게 가꾼다면 우리의 인생도 황금빛으로 빛날 수 있을 것이며,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요, 한 편의 책이 될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세계 각국에서 살아가는 많은 인종과 다른 피부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얼굴 표정과 언어로 소통하고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은 어느 민족이든 간에 그들의 얼굴에 표출되는 모습은 우리와 같이 얼굴은 마음의 거울임에 모두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에서 보듯, 범죄자들의 두 얼굴에 그려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소와 웃음이 함께하고 얼굴은 마음의 거울로 너그러운 인상을 추구 할 수 있도록 밝은 사회, 국민을 웃게 하는 정치, 행복한 세상 만들기 대한민국 국민의 얼굴을 밝게 하는 지름길이 되었으면 한다.

웃는 얼굴, 화난 얼굴, 슬픈 얼굴,

기쁜 얼굴, 얼굴은 그 사람의 심상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미모가 경쟁력이 되는 현실 속에 브랜드란 자신의 명함이자 얼굴에 나타낸 자화상이다.

내면적인 향기는 그대로 얼굴에 투영되어 진실된 모습을 그려 내고 따라서 빼놓아진 마음의 거울에는 모든 것이 왜곡되어 비추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고운 모습을 남기려면 항상 마음씨를 닦고 다듬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내 얼굴에 나타나는 속임수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웃음보다 우리의 얼굴 모습을 밝게 해주는 화장은 없다. 웃는 얼굴에 짐 못 는다는 우리 속담처럼 쉽게 화내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고 웃고, 우리가 행복한 세상을 보고 웃는 아름다운 얼굴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 되는 마음의 거울로 무심코 그린 얼굴이 등글게 빛나는 마음의 거울로 우리나라 방방곡곡 구석구석을 밝게 비추어 주길 기대해 본다.

사설

역대 최고치 경신한 학자금 대출 체납률

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은 취업 후에도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을 대출 받은 대학생·대학원생은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체납된 학자금 규모가 지난해 말 661억 원이나 된다. 이는 2012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여서 취업 후에도 호전되지 않은 경제 사정으로 고등 받는 청년들의 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 국제청이 운영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출자의 연간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면 다음해부터 의무 상환 대상으로 지정돼 학자금을 갚는 제도다.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는데 2022년 기준 연간 소득기준은 1천510만 원 수준이었다. 최저임금만 받아도 상환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이다. 월급을 받아 학자금 대출 이자와 원리금을 갚다 보면 생활이 풍족하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울 정도라는 것은 워낙 급여가 적거나 학자금 상황 외에도 갚아야 할 대출금이 많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결국 취업의 질적·양적 측면 등에 문제가 있고,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전체적으로 취업자가 늘었다고 있지만 청년 취업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45.9%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기업 등에 취업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단기 계약직에 취업했다가 금방 그만 두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경기 회복이 더디면서 눈높이에 맞는 취업의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불안정한 경제 사정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 체납 규모나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출금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체납액이 많으면 학자금 대출 제도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대출과 상환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학자금이 없어 공부 중단을 고민하는 대학생들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존재는 정부의 청년정책과 일자리정책의 조정을 어디에 두어야 할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경제가 회복되어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이 원활해지면 학자금 대출 상환 추이는 당장이라도 변화할 것이다.

시의 향기



손영란 작

손영란 시인의 ‘베로니카 아뜨리에’

이국의 장미

아름다운 베르사이유궁전의
장식된 기쁨처럼
어깨에 돋친 하얀 날개

여인의 향기 품고
유희하며 매혹 발산한다
치명적 사랑의 뮤즈되어.

시의 향기



이애순 작

이애순 시인의 ‘연보라 엮서’

마음속 하얀 장미

따스함 갖든 12월
어느 날/나뭇잎
떨어질/나뭇가지
사이로 바람 한결
없는/구름 속에서
겨울비 깨운다

마음에서/사태가 나무
늘보처럼/늘고 늘어

진다

교만은 영혼에 뿌리
내린 채/눈노가정신
불살라/울음 속 슬픔
이/현바탕 휘쓸고 간
자리/환희가 울터
오른다

연민의 눈빛과/
님의 사랑 안에서/
일상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살다

시의 향기



전소연 작

전소연 무용가의 ‘얼썩 좋디야!’

가을 향기

임께
가을 향기를 드리려 합니다
햇살아래
반짝이는 그리운 얼굴 위로
소슬 바람 타고
그대에게
가을 향기 전하려 합니다

고운 빛깔
작고 소박한 들꽃 향기를
임에게
달려가 전하려 합니다

조금은 쌀쌀한
바람이지만
그 바람ът 삼아
그대가 외롭지 않게
내 사랑 담뿍 담은
가을 향기를~~

시의 향기



장문자 작

장문자 시인의 ‘님 그리는 달술 연가’

빛물 향아리

그늘처럼 빈 독안으로 들어간다
슬픔이 얼어서 핀 꽃
응기종기 모여 있는
저 만삭의 몸짓
요염하다

길고 짧게 평퍼짐하게
찰랑찰랑 춤추는
간장속 빛물들

물 향아리 속에 빠진 흑색 진주
날 유혹한다

피도 피도 혼적 없는 습기 찬 부끄러움
사과 향기 묻은 사람에게
고요가 끊겨버린
하루의 근심 걱정 다 파내니
달빛에 즐고 있는 내 모습에 놀란다
못난 슬픈 한 바가지 떠서
빈 향아리에 붓는다
휘어진 달이
불어나는 저녁이다.

‘제4회 사회적 가치나눔 축제, 숲으로’ 함께 즐겨요

오는 27일 국립세종수목원 무료개방

세종시(시장 최민희)가 ‘제4회 사회적 가치나눔 축제, 숲으로’ 행사를 오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축제마당에서 개최한다.

사회적 가치나눔 축제는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경제 홍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판로개척을 위해 올해로 4년째 열리고 있다.

축제 당일에는 많은 시민이 찾는 지역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수목원이 무료로 개방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 홍보·판매를 비롯해 각종 체험·놀이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고 세종 사회적경제 대표 브랜드인 따시누리 홍보 등이 진행된다.

이밖에 국립세종수목원 분꽃 축제와 연계한 아카펠라 공연, 학교협동조합에다음(세종에고) 공연, 클래식 기타와 성악 공연 등 다채로운 아와 공연이 펼쳐진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사회적 가치나눔 축제가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하게 됐다”며 “세종시의 사회적경제를 알리고 다양한 주체들이 한데 모여 사회 가치를 추구하는 축제의 장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 0시 축제’ SNS 서포터즈단 출범

대전시는 오는 8월 개최되는 ‘대전 0시 축제’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SNS 인플루언서 30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단을 구성하고 17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서포터즈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유튜브 등에서 많은 팔로워(구독자)를 보유하고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거주지는 대전·서울·대구 등 전국에 걸쳐 있다.

연령대별로 20대 8명, 30대 10명, 40대 6명, 50대

6명 등 다양한 세대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외국인도 2명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본인이 보유한 SNS 채널을 통해 주기적으로 다양한 축제 소식을 알리고, 축제에 대한 궁금증은 게시물 댓글 답변을 통해 해소하는 역할도 맡는다.

한편, 대전 0시 축제는 오는 8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구간 1km 도로를 통제하고 중앙로와 원도심 상권 일원에서 개최된다.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산군, 인공지능(AI) 안부 살핌 서비스 사업설명회 열려

업무담당자 사업이해도 향상 및 효과적 고독사 예방 업무 추진 기대

예산군은 17일, 읍면 복지 업무 담당자 및 팀장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안부 살핌 서비스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안부 살핌 서비스는 사회적

고령이 우려되는 노인, 장애인, 중·장년 등 1인 가구를 선정하고 인공지능 시스템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해 주 1회 자동으로 전화하고 대상자의 식사 여부, 수면 상태, 운동, 외출, 건강, 긴급 상황 여부 등을 파악한다.

특히 안부 살핌 서비스는 이전 대화를 기억하는 기능과 계절, 명절 등 특정 시기와 어울리는 단어 사용 기능을 통해 손·지녀 등과 통화하듯 자연스럽게 친밀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며, 군은 지난 2월 26일 사업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9명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1인 가구 등에 대한 고독사 예방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산=박제화 기자

| | | | | | |
|--------------------|--------------------|------------------------------|--|-----------------------------|--|
| 대전투데이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 | 2006년 5월 17일 창간 | |
| 젊은생각·비즈니스 | | | | | |
| 발행·편집인 김현정 | 회장 김성구 | 논설위원 김영우·김성식·김종복 | | | |
| 전화안내 042538-3030 | 기사제보 042538-1601 | 팩스번호 042538-2211 | | | |
|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 구독료 월1만 5000원 | | | |
| 등록번호: 대전가 00017 | | 인쇄처: 동양일보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대전투데이

16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대전투데이



CAFE 350



대전 서구 만년로65번길 23 1층 T: 042-482-3505